2019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교육부 월간지 『**행복한 교육**』에서 **2019년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관심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응모자격
-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취재 및 기사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
- 만18세 이상의 교원, 교육관계자, 학부모, 대학(원)생 등
- 매월 1건 이상의 참신한 기사를 취재 · 작성할 수 있는 성실함을 갖춘 사람
-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교육가족과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

※ 기존 명예기자는 2018년 활동해온 과정을 평가하여 선발함.

모집인원
- ○○○ 명

응모기한
- 2019년 1월 14일(월) ~ 2019년 1월 30일(수)

원서 접수
-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응모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송부(eduzine21@gmail.com)

※ 명예기자 지원서, 취재 기획서 각 1부(단, 기존 명예기자는 소정 양식의 경력지원서 1부만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명예기자 지원 ○○○' 기재 필수

전화면접
- 2019년 2월 11일(월) ~ 2월 13일(수) 서류 합격자에 한해 전화면접 실시

결과 발표
- 2019년 2월 15일(웹진에 공고 / 합격자 개별 연락)

문 의
- 『행복한 교육』 편집실 02-2271-0992

교육부

행복한 교육 2019년 1월

특별기획 - 교육, 희망이 되다

교육부

행복한 교육

Vol. 438. 2019. 1.

특별기획 _ 교육, 희망이 되다

꿈이 영그는 현장 _ 인천하이텍고등학교

교육부

CONTENTS

January 2019 Vol. 438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2 **신년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하겠습니다

04 **특별기획**
교육, 희망이 되다
06 교육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08 포용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
13 한눈에 보는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18 **세계의 교육 변화**
세계의 교육복지: 보편 VS 선택의 쟁점

현장이야기

22 **꿈이 영그는 현장**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청명한 하늘에 드론을 날리듯 학생들의 가슴에 '꿈'을 띄운다
26 **삶과 교육** 박영자 전북 이리유치원 수석교사
30 **이런 수업 어때요** 김정영 교사의 과학놀이 학생활동중심 수업
34 **아하! 진로체험**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마루
38 **나눔 실천하는 사람들** 천안학교사랑어머니회
40 **명예기자 리포트** 고교생 웹 드라마, '오늘도 고고(Go高)!' 인기 外

정책이야기

46 **정책N전망** 교육비리 근절·신뢰 회복의 길
48 **이슈 1** 도표로 읽는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50 **이슈 2** 최저임금,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첫걸음!
52 **초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54 **꽃 피는 교육자치** 인천/강원/전남/부산/광주

정보이야기

58 **교육 썰전** 직업계고 현장실습
58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습권·근로권 동시 보장
60 안전성 검증된 실습, 취업 연계 가능한 산업체 발굴을
62 명예기자들의 썰전_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말하다
64 **학급운영노트** 세상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해외 교육봉사
66 **아이의 다락방** 매우 조용하고 평범한 효준
68 **이야기 인문학** 인간의 근본적 불안이 낳은 점술문화
70 **일상의 쉼표** 시간 여행을 선물하는 검고 하얀 설국, 태백
74 **교육 소확행** 지적장애1급 자녀를 키우는 이인옥 학부모의 기고글
77 **뉴스브리핑**
80 **행복 게시판**

표지이야기

2019년 맑~은 하늘에 드론이 떠올랐다. 드론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인천하이텍고 학생들이 드론을 통해 '꿈'을 키운다. 드론특성화고등학교인 인천하이텍고등학교(교장 박형식)는 학과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드론운용과', '드론도시설계과' 신입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있다. 학교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 교내에 드론조종사 자격시험장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드론 조립에서부터 코딩, 비행, 측량 등 드론활용에서 드론정비까지 이론과 실습이 겸비된 교육환경에서 드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한 발 빠르게 육성하고 있는 셈이다. 사진은 박영빈 학생(맨 왼쪽), 김찬영 학생(맨 오른쪽), 문종민 교사가 드론조종사자격시험장에서 드론비행을 연습하고 있다.

2019년 신년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귀하고 복된 해인 만큼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우리의 교육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정운영 철학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며,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함께 잘 살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밝혔으나,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유치원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에 차별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 부처가 각각 수립 중인 「혁신적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2019년 교육부 업무추진 방향의 핵심은, 사람 중심 미래교육시스템 구축, 교육의 신뢰회복 두 가지입니다.

우선, 교육부는 2019년을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30년 후의 사회와 직업구조, 학교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례없는 변화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라는 한 미래학자의 조언을 우리는 겸허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회일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말처럼, 낡은 지도만 따라가서는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2019년 교육부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먼저 미래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만들어 갈 ‘사람 중심 미래교육’은 소외받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포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입니다.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초중고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설 등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미래교육’은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제 교육은 정해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는 더욱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학교수업의 변화와 수업선택권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공간, 교실공간 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고 수업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나서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실을 혁신하는 수업 전문가로서 교사의 수업전문성이 높아지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연구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만이 우리 아이들의 유일한 성공경로가 되지 않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2019년 국민들께서 우리 교육이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부부터 먼저 변화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을 묵인했던 것은 없는지 더욱 엄정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교육부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로운 팀을 중심으로 교육비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자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지난 100년의 고귀한 성과와 희생을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 할 100년을 더 따뜻하고 희망차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교육, 희망이 되다

1_ 교육이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2_ 포용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
3_ 한눈에 보는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2019

문재인 정부의 복지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복지국가'이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누리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교육 전 과정에서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과 삶이 하나로 연결된 네트워크 속에서 교육이 왜 희망이 되어야 하는지 들어본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복지 정책,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방향과 주요 사업, 해외의 교육복지에 대해 소개한다.

대전전민초등학교 돌봄교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세상을 위해 : ‘앎과 삶’

다수를 위한 교육복지, 국가의 핵심 정책
교육과 사회를 하나의 정책 선상에서 보기
교육복지 네트워크 통해 ‘교육과 삶’ 연결

‘앎과 삶.’

대학에 발을 디딘 후, 첫 강의시간 주제였다. 이제 막 교문에 들어선 대학 신입생들에게 지성인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당부하는 교수님의 뜻이 담긴 주제였다. 아는 만큼 실천하라는 의미와 함께, 삶 자체가 교육이란 중층의 의미가 있었다. 이후 이 주제는 내내 우리 대학생활의 화두(話頭)였다. 역설적이게도 삶과 학교 그리고 교육이론의 부조화 때문이었다. 그건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주제였다. 더욱이 당시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확증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란 임마누엘 칸트(I. Kant)의 주장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요원한 명제로 생각되던 때였다. 학교중심의 ‘학교교육 일원론적 가치’가 이 땅을 지배하던 당시, 학교는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는데 실패한 곳으로 여겨졌고, 무기력한 다수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팽개치듯 사회로 튕겨져 나오던 시절이었다.

1990년대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이 땅에는 교실붕괴, 학교붕괴란 담론이 부유했다. 가까운 일본에선 이지메와 부등교(不登校) 현상이 도쿄슈레를 만들어내던 때였다. 우리사회에선 학업중도탈락이란 용어가 어느새 학업중단이란 용어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가치중립적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 그만큼 학교에서 밀어내는 학생들보다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고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진 까닭이었다. 학교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그간의 신화가 점차 퇴색되고 학교 밖 배움터와의 협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니기에.

2000년대 들어와 섬처럼 고립되다시피 했던 학교가 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꾀하기 시작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오늘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의 모델이 등장하고, 교육복지란 용어가 대두되면서였다. (그전에도 전혀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을 통해 비로소 학교는 다음세대의 교육을 위해 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경험과, 그런 경험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물론 교사와 학교차원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IMF를 거치며 우리사회의 빈부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소득의 불균형은 교육 출발점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던 때였다. 그래서 저항은 커다랗고 떳떳한 명분 앞에 초라하기만 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날의 저소득층 소수가 아닌 다수

그러나 교육복지사업은, 교육을 통해 우리 삶 자체를 일깨우고 인간다운 삶을 세우는 교육의 원형으로까지는 회복시키지 못했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학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복지사업 역시 저소득 지원 대책 중 교육부문의 하나로만 취급됐기 때문이다.

전자 즉 국가적 차원의 철학이라 함은, 집권한 정부 이념과는 무관하게 교육복지에 대한 범정부적, 국가적 철학을 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족한 이에게 더 많은 것을 주자”는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과 공화주의를 교육복지의 이념으로 삼는 프랑스가 30여 년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성격·이념과는 별개로 교육복지지원을 꾸준히 이끌어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후자 즉 교육복지는 소수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문의 정책이란 관점도 문제다. 사실 오늘날의 저소득층은 알고 보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다. 규모로만 봐도 그렇다.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최근 통계(2018년 3분기 기준)를 살펴보면 1분위~3분위 가구분포가 60%(59.99%)에 육박한다. 소득을 잘게 쪼개 10분위로 나누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인 8분위까지 살펴보면 80%정도다.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이라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써 응당 정책에 내재하는 철학을 일찌감치 천명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복지에 대한 범정부적 국가철학을 마땅히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교육복지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있지만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철학을 사회적으로 인준 받고자 하는 노력도, 과정도 생략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과제는 이번 정부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교육과 사회를 하나의 정책 선상에서 바라보자

2010년대를 가로질러 2020년대를 앞둔 요즘, 마을공동체 혹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드높아졌다. 학교교육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단순히 연계하는 차원이 아닌, 마을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수준으로 달라졌다. ‘학교 안 마을학교’, ‘학교 밖 마을학교’란 언급이 대통령 정책 공약집에 있을 정도다. 그런데 마을학교든, 마을교육공동체든 여기에는 마을과 학교, 혹은 마을 내 다양한 자원들 간에 서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연계와 협력을 우리는 네트워크라 부른다.

사실 네트워크는 교육과 삶을 가로지르는 핵심 개념이다. 서로가 다른 듯 독립되어 있던 교육과 우리 삶을 연결하고, 나아가 양자 간 협력을 통해 대안적 수단으로 만든 것이 바로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는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교육을 ‘교육적 돌봄’의 개념으로까지 보다 실천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한 것이다. 이 이면에는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취약한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개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적 약자는 결국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는 교육문제가 곧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교육과 삶, 다시 말하자면 교육과 사회를 하나의 정책 선상에서 바라보게 한다.

이제 적지 않은 기간 숙성해온 교육복지가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과 우리네 삶을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 “마을이 학교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란 여러 구호가 난무하지만, 여전히 산적한 여러 과제가 놓여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겁주는 것은 교육을 학교란 틀, 학교란 졸업장으로만 보려는 제한된 시선이다. 앎과 삶. 그런 앎과 삶을 누리고 싶다.

포용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만들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에 초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 전 영역으로 확대, 국가가 책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년 7월)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비전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라고 밝혔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이전 정부가 효율성을 중시하여 재정 건전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복지 투자를 지원하였다면, 현 정부는 더욱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보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은 더 큰 교육격차를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생애 초반기부터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복지 정책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교육 전 과정에서 교육복지 영역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교육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유아교육에서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한다는데 특히 큰 의미를 가진다. 먼저, 교육부는 질 높은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 '18년 497개 학급을 증설하였으며, 2019년에 1,080개, '20년 500개, '21년 500개로 점차 확대하여 '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달성('19. 1,080개 학급 신설)을 통해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등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돌봄 확대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유치원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히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19.하)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며 놀이교육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한다. 올해 36개의 혁신유치원을 '19년에는 60개로 늘리고, 방과후 놀이유치원도 올해 51개에서 '19년 500개로 확대한다<표 1, 2 참조>.

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교육부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설·운영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설할 예정이다<표 3, 4, 5 참조>.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겸용 돌봄교실 190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한 돌봄교실 1,354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총 1,620실의 돌봄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

[표 1] 유치원의 공공성과 질 강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과후 놀이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40% 조기달성 ('19) 1,080 학급 신설	('18) 51개 ⇨ ('19) 500개	통학차량 지원, 돌봄확충

[표 2]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목표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18~'22년
국공립 학급수 (신증설 수)	11,481 (500)	12,011 (530)	12,541 (530)	13,084 (543)	12,600
국공립 취학 아동수 (비중)	192,461 (29.8%)	203,061 (32.0%)	213,661 (36.0%)	224,337 (40%)	⇧5.2만 명

[표 3] 2018년 시·도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18.4.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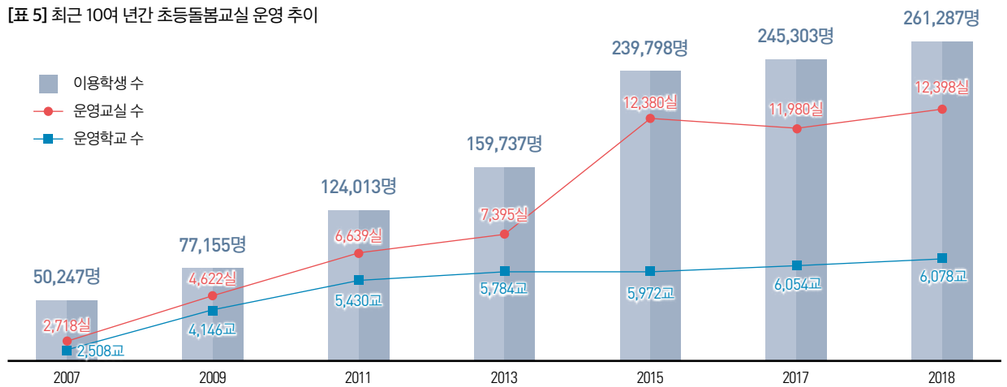
시·도	운영학교 수	운영교실 수	이용학생 수	시·도	운영학교 수	운영교실 수	이용학생 수
서울	569	1,730	36,833	강원	363	542	11,083
부산	300	584	12,749	충북	259	450	9,427
대구	225	443	9,365	충남	420	744	15,595
인천	250	571	12,290	전북	419	756	16,653
광주	152	291	6,195	전남	426	656	14,258
대전	149	399	8,119	경북	490	797	16,302
울산	120	276	6,153	경남	512	896	20,340
세종	47	145	2,945	제주	106	185	4,626
경기	1,271	2,933	58,354	계	6,078	12,398	261,287

[표 4] '19년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증설·확충 계획(안)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증실교실 수	301	31	89	167	2	109	11	27	29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증실교실 수	22	27	12	27	10	60	15	15	1,218

※ '18. 12월까지 이미 확충한 77실을 포함한 수치임

[표 5] 최근 10여 년간 초등돌봄교실 운영 추이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운영학교 수	2,508	2,962	4,146	5,177	5,430	5,652	5,784	5,938	5,972	5,998	6,054	6,078
운영교실 수	2,718	3,334	4,622	6,200	6,639	7,086	7,395	10,966	12,380	11,920	11,980	12,398
이용학생 수	50,247	54,638	77,155	104,496	124,013	159,248	159,737	221,310	239,798	238,480	245,303	261,287

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등)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시·도교육청별 신학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반장 또는 담당관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를 3월까지 상시 체제로 구성·운영하고, 학교가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과 연계하는 등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함께 돌봄교실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나 매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마을)과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므로 올해 출범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도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실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0만 원 추가 지원('19.3월~)한다.

현재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희망을 품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용품비·부교재비·(고교)수업료·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국가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으로, 이미 약 3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2019년에는 초중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초교는 '18년 11만 6천 원 → '19년 20만 3천 원으로, 중·고교는 '18년 16만 2천 원 → '19년 29만 원으로 오른다.(최저교육비: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된다.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하고 있어 고등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표 6 참조>.

4.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청년들의 구직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와 주거비 걱정으로 학업에 충실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에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자기계발에 몰두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간의 교육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하였다. 중구간 학생의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17년 약 52만 명에서 '18년 약 60만 명까지 확대*하였다. '19년에는 반값 등록금 수혜 범위를 130% 이하로 확대하여 70만 명까지 수혜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표 7 참조>.

*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 확대 : ('17) 기준중위소득 90% 이하(3구간, 전체 재학생 대비 23%) → ('18) 120% 이하(6구간, 전체 재학생 대비 28%)

또한 기초·차상위 및 장애대학생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초·차상위 성적기준을 완화(B → C)하였으며, 장애대학생 성적기준을 폐지(C → 폐지)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장학금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환경개선 사례

서울 '19년부터 기존 1~2학년 중심에서 3학년까지 확대, '20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예정

인천 돌봄교실 대기자 없음을 목표로, 1~2학년은 돌봄교실을 증실하고, 3~6학년은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1교당 1실 이상 의무 운영

경기 3학년 중심, 1~2학년 대기학생 중 희망학생 돌봄수요에 대비하여 상시적 놀이중심 공간으로 구축·운영

[표 6] 교육비 부담 경감

어려운 학생도 걱정 없이 받는 교육		고등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유아 학비지원	교육급여 인상	고교 무상교육
유아학비(월**10만 원**) 추가지원	**초 등** : '18 11만 6천 원 ⇨ '19 **20만 3천 원** **중·고** : '18 16만 2천 원 ⇨ '19 **29만 원**	조기 시행('19. 하반기)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 장학금을 '18년부터 다자녀(셋째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 확충(실입주 3만 명)을 목표로 22,718명(실입주 4,523명) 수용이 가능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6,000명 규모의 신규 기숙사 설립 및 대학생 9,205명 추가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표 8 참조>.

교육부는 앞서 소개한 정책들을 기반으로 유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모든 아이가 출발선 단계부터 자유롭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교육복지 정책이 주로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의 교육복지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학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과 생활 전체를 촘촘히 아우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7] 2018 국가장학금 지원 구조

소득구간	국가장학금(3조 6,845억 원*)			대학 자체 노력
	I 유형 (2조 9,416억 원)	다자녀 (2,600억 원)	II 유형 (4,800억 원)	
기초·차상위	520만 원	520만 원	4,000억 원 (대학연계지원) / 80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1구간~3구간				
4구간	390만 원	450만 원		
5구간	368만 원			
6구간				
7구간	120만 원			
8구간	67.5만 원			

* 운영비 29억 원 포함

[표 8] 연도별 기숙사 확충 계획(~'22. 5만 명 규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기준	20,000명	26,000명	32,000명	38,000명	44,000명	50,000명
실입주기준	4,260명	13,465명	22,105명	26,055명	27,900명	30,000명

한눈에 보는 시·도교육청 교육복지

모든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서 차별 없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지닌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이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직면해야 하는 교육소외, 교육여건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 교육복지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서울 가족(품)-학교(품)-마을(품)의 '3품 공동체' 구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취약 및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복지위원회와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 지원 체제 구축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성장을 위해 가족-학교-마을의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지속·체계적으로 지원하는 '3품 공동체'라는 서울형 학생성장지원 거버넌스도 구축했다.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 균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기 역량을 발휘토록 하는 '정의로운 차등'을 강조한다.

부산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송정중 개교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요리조리' 회동마루에서 창의공작소와 영양교육체험관을 운영, 창의융합교육을 실현해 나간다. 모든 유·초·중·고·특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깨끗한 교실환경을 조성한다. 모든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첫 교복이 지원된다. 오는 3월에는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송정중이 개교를 앞두고 있다.

대구 모두 다 품는 '다품교육'

대구시교육청은 능력, 환경, 지역, 장애,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회와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두 다 품는, 다품교육'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등 위기학생 대안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223개교·중학교 125개교 등 교육 취약계층 경비지원 등 우선배려학생을 지원한다. 어울학교 운영(3교) 등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도 시행한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 2021년 대구특수교육원을 설립·개원할 예정이다.

인천 학교 신설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인천시교육청은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교육비 경감'을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신설 등 학생 배치 여건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돌봄교실'(대기자 제로 목표 등)을 확대한다. 중·고등학생의 교복비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탈북자 교육지원 내실화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7,000교실의 '광주희망교실'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GMO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시행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한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급식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급식만족도를 높인다. 또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학비 지원, 교과서 구입비 지원, 인터넷과 통신비 등 정보화교육도 지원한다. 또 취약한 여건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희망교실'(7,000교실)도 운영한다.

대전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 교육력 강화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 맞춤형 교육복지를 더욱 강화한다. 2만 8,000여 명 중·고교 입학생의 동·하절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도 더

늘린다. 지자체와 연계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공립유치원 3곳이 신설되며, 단설 및 병설유치원 27학급이 증설된다.

울산 학생복지시스템 대폭 확대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울산학생교육복지시스템 운영 등 학생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한다. 고교 교과서비 지원은 물론,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기숙사비(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 등 4개교)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공·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일부도 지원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현관 앞 신발장, 양치시설 등 학생 편의시설도 올해 확충된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등 고교 학비도 지원된다.

세종 안전한 학교 조성 및 책임교육 강화

세종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새해부터는 교육복지와 안심교육을 위한 '책임교육' 강화에 나선다. 중·고등학교 입학생 대상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소외계층 학생에게는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안전한 학교 배움터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올해 '교육복지정책위원회'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추진방향은 '따뜻한 생활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다.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다양한 배움을 보장하는 대안교육,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평생교육,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기반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2년 전부터 기반을 다진 '교육복지정책위원회'가 올해 본격 가동되며, 지역사회 학습안전망협의체가 올해 안착을 앞두고 있다.

강원 '돈 안 드는 교육' 완성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새해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전문상담 지원체제 운영을 더욱더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지표를 새로 개발하고, 학업중단 예방활동 강화 등 대안교육, 공립형 대안학교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국가-지자체-학교를 연계한 돌봄·방과후학교 등 돌봄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학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학부모의 '돈 안 드는 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상생하는 충북형 교육복지 모델 구축

충북도교육청은 2019년 교육복지 업무 중점추진과제로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아 놀이중심교육,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존중 문화정착, 교육기회 확대로 차별과 소외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간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도 경감한다. 이로써 충북형 교육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한 해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충남 농어촌 작은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충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작은학교 교육역량 강화 등 교육의 공적 기능 확대가 목표다. 특히 작은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 등 7개 군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또 농어촌 지역 통학버스 임차비 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초등 34개교, 중 31개교, 고등 11개교). 또 고교 수업료 지원 등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교복비 지원·교복 자율화 확대로 학생의 인권존중 문화도 높인다.

전북 교육복지 중점학교 125개교·연계학교 194개교

전북도교육청의 새해 교육복지는 학생들의 교육기회·과정·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의 보완이 첫 번째 과제다. 교육복지 중점학교 125개교, 연계학교 194개교 등 교육취약가정 학생이 밀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는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급여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행된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도 서두른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진로직업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전남 에듀버스·에듀택시 등 농어촌학교 지원 강화

전남도교육청은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 구현이 2019년 교육복지 목표다. 고교 교과서 무상보급,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 무상교육·무상급식을 확대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에듀버스를, 또 에듀택시로 통학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학교와 원도심학교 지원도 확대된다.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돌봄교실 신·증축 등 초등 돌봄교실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경북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시범운영

경북도교육청은 학습부진 학생의 다중지원 시스템 '경북기초학력 BEST'(Basic Skills, Emotional Support, System,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농산어촌은 지자체와 함께 학습공동체를, 도시지역은 자유수강권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중 희망학교는 대규모 학교와 연계하는 '자유학구'로 지정,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 뒤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 교육수혜 불균형 해소 지원 확대

경남도교육청은 2019년에도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 사업으로 기초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2018년 이 사업으로 1만 6,840명의 학생이 지원혜택을 받았다. 이 외에도 교과서 구입비 지원,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또 교육수혜의 불균형 및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18개 시·군 초·중·고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 2학기부터 중학생 교복비 지원 예정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 2학기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학생 교복비 지원 20억 원 증액을 최종 의결했다. 당초 이 지원은 2020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었으나 제주도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결정하면서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게 꼭 맞는 혜택 '교육지원 한눈에'

교육복지 및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구축한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에서는 소득수준 등 여건에 따라 학생,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정책수요자가 맞춤형으로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수요자는 서비스 지원 신청 시기를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은 지난해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0여 개의 주요 교육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후 보다 다양한 지역 맞춤형 정보를 수요자에게 안내한다는 취지로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복지 및 지원 정책을 추가했다. 당시 개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및 통학비 지원'(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참가비 대금 지급 지원'(충남교육청), '저소득층 교복지원'(세종교육청), '다문화·탈북학생 대학생 멘토링'(부산교육청) 등 특수교육대상자(24개), 저소득층(19개), 다문화가정 학생(23개)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의 교육적 부담을 해소하는 지원 정책들이 추가로 탑재됐다. 교육부는 2019년에도 교육정책 수요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시·도교육청별 교육복지 정책추진 방향 및 주요사업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 정책추진 방향	주요 프로그램
서울	• 지역·가정·학교가 함께하는 교육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놀이와 쉼이 있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의로운 차등' 강화 •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기회 확대	•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가족(품)·학교(품)·마을(품)의 3품 교육공동체 • 수요자 중심·놀이 중심의 유치원 방과후 과정 • 교육격차 해소 위한 '학교평등예산제' 운영 및 '교육복지지표' 적용 확대
부산	• 공립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급식, 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사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여건 제공	•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돌봄교실 확대 운영 • 미래의 꿈을 '뚝딱뚝딱', '요리조리' 회동마루(창의공작소, 영양교육체험관 등) 운영 • 모든 유·초·중·고·특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 모든 중학교 입학생에 첫 교복 지원
대구	•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위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특수교육으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구현	• 초등 223개교, 중학교 125개교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 • 자율형 13개 공립고 내실화 등 취약지역 교육활동 지원 • 다문화 정책학교 등 다문화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인천	•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비 경감 등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구현	• 쾌적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 신설 • 돌봄 수요 충족 '대기자 제로' 추진 • 고교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지원으로 전면 무상교육 실시 • 저소득 가정 학생 졸업앨범 비용 및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광주	• 친환경 무상급식 이행 등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 학부모 교육경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광주희망교실' 운영 • 희망기부가게 운영 •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 105개교(초등 61개교, 중학 40개교, 특수 4개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시행
대전	•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 배움과 돌봄의 유아교육 •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 학습과 삶을 연계한 평생교육 등 기회균등 교육복지 추진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 • 유아교육 공교육 기능 확대 •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교육력 제고
울산	•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 • 공존과 통합의 특수교육 • 다양한 학생교육복지 지원 확대	•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학생 편의시설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2019년 신규사업)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 전액 지원
세종	• 교육복지 관련 사업 일원화 • 교육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 안심교육을 위한 책임교육 구현 * 2018년 교육복지과 신설	•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 고교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소외계층 중·고등학생 대상 체육복 구입비 지원 • 2021년 세종학생안전교육원 개원 예정
경기	•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 해소 •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 다양한 배움을 보장하는 대안교육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하는 평생교육 •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교육 추진	• 2019년부터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운영 • 병원 내 설치된 특수학급, 병원학교 운영 확대 • 특수교육 공동체학교 확대 운영 •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 지역중심 다문화 어울림축제 운영
강원	•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 • 더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최소극대화의 원칙' 구현 등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추진	• 교육지원청에 '학생지원센터' 신설 •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지역별 돌봄협의체 운영 • 중·고교 교복비, 다자녀가정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지원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확대
충북	• 아이 꿈이 성장하는 행복 유아교육 •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 • 미래희망 더하기 방과후학교 • 나눔과 채움의 교육복지 등 추진	• 행복한 성장을 돕는 유치원 교육과정 • 특수교육 맞춤형 자율장학 및 특수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 꿈과 희망을 더하는 방과후학교 및 온 마을이 함께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지원 및 지역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충남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학부모 교육비 경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 신뢰성 제고	• 농어촌 작은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 • 고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비용 지원 등 무상교육 확대 • 생애 첫 교복 지원 등 교복비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활성화 및 교육급여 개선 등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
전북	• 학생들의 교육기회·과정·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 보완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	•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의무급식 제공 •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저소득층 여학생에게 위생용품비 지원 • 초(15만원)·중(20만원)·고교 학생(3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대학생 멘토링, 다꿈학교 및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전남	•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차별 없는 교육 실현 •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 등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구현	• 고교 신입생 교과서 무상보급 등 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확대 •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 작은학교·원도심학교 지원, 농어촌 학교의 에듀버스 확대 및 에듀택시 운영
경북	•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 •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 모두를 존중하는 교육 • 고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추진	• 경북 기초학력 신장 BEST 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방과후학교 및 학교 안·밖 돌봄체계 구축 • 다문화 학생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도입 등 농산어촌 학교 지원체제 구축
경남	• 사회 경제적 교육소외, 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를 통한 희망교육복지 실현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학생 예방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학교 내 대안교실(꿈키움) 운영 • 대안학교 위탁기관 지원
제주	• 제주형 교육복지로 아이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가 존중받는 '교육복지특별도, 제주' 추진	• 학교와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 초·중·고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올해 2학기부터 중학생 교복비 지원 예정

글_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단장

세계의 교육복지: 보편 VS 선택의 쟁점

영국, 교육복지의 '선택과 평등 쟁점'

2017년 6월 21일 영국 여왕은 국정연설을 통해 교육예산 활용조치를 포함한 공교육 개선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정부 측에 요청하였다.

이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 보수당 정부가 소위 예전의 명문학교인 '문법학교'를 증설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여왕은 특히 문법학교를 증설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급식 예산을 문법학교 증설에 전용하려는 것을 비판하였다. 집권 보수당 정부는 여왕의 연설을 수용하여 모든 아동이 양질의 우수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개혁방안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다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개혁에 착수하였다.

한편, 영국의 교육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트러셀재단(Trussell Trust)은 6주의 여름

방학 기간에 사회적 배려계층을 중심으로 다수의 아동이 영양결핍과 굶주림의 위험에 놓여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런 경고를 수용하여 영국 정부는 '학생 지원'(Pupil Premium)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학교교육 초기단계부터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성취에 적극 개입하여 학업성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원 자체는 국고를 위주로 하면서도, 각 학교별로 지역사회 및 자선단체와 연계를 통해 재원을 자발적으로 확충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은 연평균 가구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 출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무상급식 대상자, 군인가족, 6개월 이상 사회보호시설에 보호를 받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복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만 5~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무상급식을 집중 지원하며, 방학기간에 사회적 기업 등의 NGO와 연계한 급식-학습지원 연계 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상보육 예산을 강화하고, 저소득 집중지원 대상 가정에 대해 온종일 급식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셋째, 초등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혁을 단행하여 아동의 학습결손을 지원하고 계층 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학력개선정책을 실천한다.

실제로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은 방학 기간에 독서와 건강한 급식지원을 받음으로써 읽기, 수학, 신체성장과 체력단련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휴교일 활동프로그램과 조식클럽 등을 실천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영국은 이미 100년 전부터 어느 정도 보편적인 수준의 보육 및 교육복지정책이 시행되어 온 편이다. 그러나 최근 영국의 복지재정 부담은 재정 악화로 인해 지방과 개인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하는 복지'를 표방하는 영국의 현 정부는 복지 개념 재규정 및 재원확보,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정책으로 실천하였다(윤선인, 2013).

최근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건·건강에 이어 교육이 두 번째로 재원이 늘어나야 할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집권 정부 측은 더 이상 교육재정이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며, 기존의 주어진 예산 속에서 교육개혁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 측은 다만 교육적으로 배려해야 할 저소득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방안은 여전히 중점적으로 실천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수요일 계획'과 돌봄 사업

2017년 5월 마크롱 정부는 주로 초등학교 교육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는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기존의 초등학교 '주4.5일제 수업'을 '주4일제 수업'(매주 월·화·목·금요일 수업, 수요일은 중간 휴업일)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원래 200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 초등학교는 수요일을 중간 휴일로 하는 주4일제 시간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13년 올랑드 정부 당시 수요일 반나절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수업을 실시하는 등 4.5일제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당시 학부모들은 반일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찬성론, 반일 수업 자체가 별 효과도 없이 교사와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반대론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이런 논쟁과 관련하여 마크롱 정부는 초등학교 4일제 수업시간표로 환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주4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방학 기간을 단축하는 방침을 검토하였다. 현재도 프랑스 초등학교는 평균 수업 일수가 162일로 유럽연합 평균 수업일 181일에 훨씬 못 미치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교육부는 초등학교 주4일제 수업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행령을 발표하고, 전국 약 38%의 코뮌과 약 31%의 전국 국공립 초등학교가 9월 신학기부터 주4일제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8년 현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4일제 수업과 주4.5일제 수업을 병행·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농촌지역 코뮌(기초지방자치단체)은 주4일제 수업, 도시지역 학교는 주4.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주로 맞벌이부부로서 수요일 휴무일의 자녀 돌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2018년 6월 1년여에 걸친 검토 끝에 교육부와 문화부, 스포츠부가 공동으로 '수요일 계획'을 실시할 것임을 공식으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코뮌과 학부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수요일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놀이 시간을 제공함을 골자로 한다. 즉, 중앙정부가 지역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2018학년도 9월 신학기부터 모든 코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이 문화와 스포츠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프랑스의 '수요일 계획'은 초등학교에서 주4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돌봄을 중점 실천하면서 가정과 학교를 긴밀하게 연계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4.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수업시간과 방과후 시간에 대한

UK

- 만 5~11세 방학 중 무상급식-학습 지원
- 스코트랜드 휴교일 활동·조식클럽 운영… 학업성취도 향상
- 교육과정 개혁, 학습결손 및 학력개선 정책 실천

FRANCE

- 국공립 초등학교 주4일제, 주4.5일제 수업 병행 시행
- 교육부·문화부·스포츠부 공동, '수요일 계획' 수립
- 문화·스포츠 등 양질의 방과 후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CANADA

- 저소득가정 지원 늘려 2030년까지 빈곤아동 60%까지 줄인다
- 아동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출발선부터 평등한 교육 실현
- 성취도 낮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 투입… 학교 격차 해소

일관성을 유지하고, 저녁 6시까지 돌봄을 강조한다. 중등학교 단계의 수요일 계획은 방과후 돌봄 교육활동보다는 학교 수업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사업과 방과후 교육활동이지만 코뮌, 혹은 코뮌 간의 협력기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수준의 질적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면서 적극 참여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공교육의 공정성과 교육복지 정책

지난 2018년 10월 30일 유니세프는 '불공정한 출발: 선진국 아동교육의 불평등'(Report Card 15: An Unfair Start: Inequality in Children's Education in Rich Countrie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는 학교 내의 교육평등이 38개 대상 국가 중에서 9위를 차지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학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에서 학생의 다양한 가정환경에 따른 차이는 학교교육을 비롯한 교육 서비스의 접근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육 평등의 기회도 함께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학생 간의 읽기 실력 격차가 매우 좁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통한 평등이 비교적 잘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데 유니세프 캐나다(UNICEF Canada)도 비슷한 시기에 '평등척도: 교육은 어떻게 해야 캐나다 아동을 위해 공정할 수 있는가?'(The Equalizer: How Education Creates Fairness for Children in Canada)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학생의 교육 격차를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다.

특히, 캐나다 교육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치와 목표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교육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등교육을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하였다. 즉,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이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나 소득 불평등은 아동의 평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더구나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캐나다 원주민 학생의 경우에도 더욱 풍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교육의 공정성을 완벽하게 달성하려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좁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의 영양 상태, 불안과 괴롭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와 연계·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복지 실천전략을 중점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첫째, 각 가정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정부 부처는 가난한 가정의 아동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최소 50%, 2030년까지 60%까지 아동의 빈곤 정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원주민 공동체를 포함한 국가주택보급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을 강화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아동의 발달과 학업성취를 일반 아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미취학 아동들의 교육을 얼마나 평등하게 제공하느냐 하는 출발선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 격차를 줄여야 한다.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유연한 방식으로 학습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 즉, 읽기, 과학, 수학 등 기초능력에 대한 학습을 넘어서서 실제 직업에서 필요한 영역, 예를 들어 건강, 금융 문해력,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한다.

다섯째,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골고루 영양공급을 강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과 방과후 돌봄 등 폭넓은 복지를 보장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대체로 캐나다는 초등학교 학업의 출발점에서부터 불리한 입장에 처한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아동에게 획일적인 교육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지닌 다양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교육하는 방안이 복지정책과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집단과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공정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중규(2017). 캐나다 초등학교급에서의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현황 및 해소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http://edpolicy.kedi.re.kr) (2019년 1월 3일 최종검색)
- 윤선인(2013). 영국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정보센터.(http://edpolicy.kedi.re.kr) (2019년 1월 3일 최종검색)
- 윤종혁(2018). 최근 세계 교육정책의 이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edpolicy.kedi.re.kr, 2019년 1월 3일 최종검색).

※「영국 : 여왕의 국정 연설: 문법학교 확대계획 폐기」, BBC(2017.06.21.)/「프랑스 : 1/3의 초등학교, 2017학년도 주4일제로 전환 예정」, 교육부(2017.07.18.)/「프랑스: 수요 계획-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놀이 시간」, 교육부(2018.06.20.)/「캐나다: 유니세프 보고서-캐나다 공교육의 공정성」, Canada Newswire(2018.10.30.) 등 주제 원문 관련 한국교육개발원 해외통신원의 취재 번역본을 참조하여 활용.

글_ 이순이 본지 편집장

1

2

3

4

1. 학과별대항 드론축구대회
2. 드론도시설계과의 무인멀티콥터 활용 수업
3. 4. 드론조종 실습 과정에서 하늘에 띄운 드론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청명한 하늘에 드론을 날리듯 학생들의 가슴에 '꿈'을 띄운다

국토교통부 승인, 교내 드론시험장 갖춰
드론활용부터 정비까지 드론인재 육성
드론축구 경기하며 저절로 드론조종 배워

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드론시험장

드론특성화고인 인천하이텍고는 4차 산업 분야인 드론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최초로 2017년 학과 개편을 통해 2018년 3월부터 '드론운용과', '드론도시설계과'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IoT과 등 드론과 관련한 조립, 코딩, 비행, 측량 등 드론활용부터 드론정비까지 드론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 드론조종사자격시험장을 갖추고 있어 드론 관련 이론과 실기를 겸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박형식 교장은 "고등학교 내에 드론시험장을 갖추고 있는 사례로는 국내 최초"라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해에 교내에 드론시험장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천인력개발원(인천무인항공센터), (사)공간정보산업협회,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딩드론메이커스협회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기술인력 지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한다.

또 손영배(진로직업상담) 부장교사는 "학교 내에 드론시험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로서 드론 관련 학과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업시간에는 드론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드론실습을, 방과 후에는 일반인과 교사, 학생들이 드론실습과 시험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학과 개편에 따라 교사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 지난 여름 교사 13명이 30시간의 직무연수를 받았다. 드론조립에서부터 비행에 이르는 과정이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차례에 걸쳐 드론조종 교사연수와 학생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중 교사 2명, 학생 5명이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2월 10일에 시작된 3차 드론조종 연수. 12kg 이상 드론이 인천하이텍고 운동장 상공에서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다. 두 개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는 인천하이텍고 교사 6명이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파견된 교관의 지도를 받으며 조종대를 잡고 진지하게 드론조종에 나선다. 이들은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로 20시간의 드론 조종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드론조종을 가르칠 수 있는 80시간의 드론지도자 과정과 50시간의 실기평가 지도조종사 과정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문종민(드론도시설계과) 교사는 "드론특성화고로서 인천하이텍고가 선두주자이다보니 미개척 분야가 많다. 교사로서 대학에서 배우지 않았던 드론조종, 드론코딩을 배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이 크지만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오는 2월에 있는 드론조종사자격증이 1차 목표"라고 말한다.

드론개발자를 키우는 교육과정 구성

현재 특성화고 가운데 드론 운용에 대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어 새로운 교육과정과 산학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인천하이텍고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명원(드론운용과·공학박사) 부장교사는 "드론은 기계계열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은 전자와 정보통신에 가깝다."며 "기계, 전자, 정보통신이 융합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없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핵심기술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5. 드론축구를 통해 조종기술을 익히는 학생들 **6.** 학생들은 조립, 코딩, 비행, 측량 등 드론활용부터 드론정비까지 전 과정을 배운다.

때문에 2~3학년은 고시용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1학년은 '전자회로 기초', '프로그래밍', '디지털논리', '전기전자기초' 과목을 배우고 있으며, (2019학년도) 2학년은 'ATmega128+TEXT LED', 'JAVA언어', '(소형)무인기전자장치', '드론운영'을 가르칠 예정이다. (소형)무인기전자장치 교과는 지난해 개발을 완료해 교육청으로부터 고시용 교과로 승인을 받아 오는 3월부터 교재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밖의 교과는 NCS 교과의 일부를 가져와 해당 분야 교수들의 자문을 구해 고시용 교과서로 개발 중이다. 3학년 과정에는 드론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TFT LCD, 센서응용, 모터구동 등 실제 드론개발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전자기기기능사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명원 교사는 "국방부에서 드론부사관을 뽑고, 해양경찰청에서 바다를 드론으로 감시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국내 드론산업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나마도 소형드론 중심이고 대형드론은 해외에서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라며 "12kg 이상 드론이 항공에 떠 있는 시간이 13분이다.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8~12시간 이상 비행을 해야 하는데, 민간차원에서 드론개발이 쉽지 않다. 정부차원에서 드론산업의 길목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영길(드론도시설계과) 부장교사는 "12kg 이상 드론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며 "우리 학생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드론비행 실습을 할 기회가 많은데, 이수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무척 아쉽다."고 지적한다.

게임을 즐기듯 드론조종에 빠진 학생들

자격증 취득용으로 쓰이는 12kg 이상 드론은 1천800만 원 수준. 고가 장비인데다 13분 비행 후에는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고루 실습에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 특히 학과 개편 이전에 입학한 2~3학년은 교육과정 상 드론을 배우기 어려운 여건이다. 때문에 학교는 학과별대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해 2~3학년도 소형드론을 이용한 드론조종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드론을 잘 다루는 한 명이 경기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수 2명, 수비수 3명이 한 팀이 된다. 공격수는 지름 20cm의 드론볼을 조정하여 중앙에 설치한 1m 높이의 원형골대(지름 60cm)를 통과해야 하고 수비수는 드론볼을 조정해 공격수를 막아내는 경기. 게임을 즐기듯 드론축구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박형식 교장은 "드론은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다.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다. 드론 관련 학과가 아니더라도 인천하이텍고를 졸업하는 학생이라면 드론조종은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며 "앞으로 도제교육을 드론 분야로 확대하여 드론 관련 산업체 취업과 대학진학, 드론공무원반, 드론부사관반을 운영, 양질의 취업처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한다.

INTERVIEW

드론조종사자격증·공단 취업은 성실한 학교생활의 결과물

박영빈(디지털전자정보과 3학년) 학생

박영빈 학생은 최근 드론조종사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인천시설공단에 취업이 확정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박영빈 학생은 "학교에서 준비한 과정을 성실히 따라가며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전자, 통신 관련 자격증 외에도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취득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드론코딩 자격증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유도선수로 활동했다는 박영빈 학생은 부상으로 선수의 꿈을 접고 특성화고인 인천하이텍고로 전학을 왔다. 친구들 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배우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했다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박영빈 학생은 졸업 후 인천시설공단에서 통신두절이나 재난상황에서 유지보수하는 일을 할 예정이다.

"드론부사관의 꿈을 향해 오늘도 드론을 띄워요"

김찬영(디지털전자정보과 2학년) 학생

김찬영 학생은 뚜렷한 목표 없이 입학했지만 "드론을 알게 되면서 드론부사관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의 드론조종교육을 받으면서 박영빈 학생과 함께 지난 11월경 드론조종사자격증을 취득하며 꿈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는 적의 핵심 시설을 감시하는 정찰용 드론 부대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드론부대 등 드론봇 부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드론 관련 자격증을 갖춘 부사관 모집도 알렸다.

"매년 9월경에 부사관을 뽑는 시험이 있어요. 부대별로 드론부대를 창설한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들었어요. 앞으로 1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부사관 시험에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도제교육에서 취업까지,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어요"

장희원(컴퓨터응용제어과 3학년) 학생

인천하이텍고는 3년 전부터 도제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오고 있다. 장희원 학생은 주3일은 산업체에서 주2일은 학교에서 도제교육을 받아왔다. 2학년 때부터 남동공단에 위치한 ㈜멀티텍이란 전자회사에서 성실히 도제교육을 받아온 장희원 학생은 최근 입사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전자와 관련된 PCV 제조회사에요. 도제교육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회사에서는 실습교육을 하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함께 도제교육을 받았던 친구와 같이 입사하게 되어 더 기쁩니다."

도제교육을 하면서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다는 장희원 학생은 "도제교육을 하면서 일도 배웠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배운 것 같다."며 "대인관계도 활발하고 일도 잘해서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글_ 편집실

박영자
전북 이리유치원
수석교사

아이 꿈은 ‘아이다움’에서 시작합니다

1

공공 유아교육 성장 이끈 35년
장애유아를 위한 통합교육 첫발
놀이중심 활동으로 수업 혁신

40여 년이 흐른 국·공립유치원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친다. 지금의 유아교육이 있기까지, 그의 교직 인생도 그 궤를 따라 함께 해 왔다. 퇴임을 2년여 앞둔 시간, 박영자(60) 전북 익산 이리유치원 수석교사는 “지금의 이 시기가 유아교육 발전의 커다란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의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나 있던 유치원 교육이 2013년 누리과정 도입으로 점차 공공성이 확대되며 양적,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초까지 사회를 뜨겁게 달군 유치원을 둘러싼 논쟁은 유아교육도 교육법의 체제 안에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바라봤다.

공공 유아교육의 ‘성장통’과 함께 한 35년

“민간에서 시작된 유치원 교육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40년을 이제 갓 넘었을 뿐입니다. ’80년대 초 국·공립유치원으로 첫 발령을 받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저 또한 겪어 왔습니다. 지금의 누리과정처럼 공통의 교육과정도 없던 시절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이 유치원 교사의 몫이었지요.”

1976년 최초의 공립유치원이 설립된 후,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를 통해 부임한 그는 유아교육에 새 싹을 틔우는 데 힘을 보태왔다. 각종 동아리 활동과 자료 개발, 현장연구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치원 창작동화대회 7회 수상, 유치원 인성교육 실천연구대회 4회 수상, 유아교육 장학자료 5권 개발을 비롯해 ’86년부터 13년 연속 유치원교재교구전 수상을 거머쥐기도 했다.

무엇보다 1992년부터 20년이 넘게 교과연구회에 참여하며 유초연계, 유아과학, 독서토론, 놀이중심 교육 등을 연구한 공로 등으로 교육장, 교육감,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9회에 걸친 표창장도 수상했다. 20년 전부터는 교육연수원과 대학 강단에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꿈꿔 왔습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사와는 달리 유치원 교사는 ‘교육’보다는 ‘보육’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온 부분이 컸지요. 자기계발과 교직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대학원에서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 공부를 이어나갔어요.”

일반-장애유아 통합교육으로 동반성장

1.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 박영자 교사
2.3. 다양한 동화를 주제로 놀이중심 활동을 하는 박 교사
4. 수석교사인 그는 동료와 후배교사들이 자주 찾는 멘토다.

국·공립유치원으로 부임하기 전 박 교사는 서울 중앙사회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 20대 만난 첫 '제자'들은 복지관 인근의 저소득가정 자녀들로 더 큰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다수였다.

가정방문을 간 어느 날엔 두 눈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 집을 나서야 했다. 몇 사람이 들어가도 가득 차는 작은 방에서는 일세를 내며 살아가는 가정을 처음으로 눈에 담았다. 한 아이 아버지는 매일 아이 손을 끌고 구걸을 하러 길을 나섰다. 시각장애를 지닌 어머니 밑에서 학습저하를 겪는 아이와 성매매 집창촌에서 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할 때도 어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다. 처음으로 보고 듣고 만난 아이들을 겪으며 그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를 만드는 공동체 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됐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우분트(Ubuntu)'입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있어 내가 있다, 즉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뜻이지요. 반투족 아이들에게 1등 하는 사람이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모두 손잡고 달려가 과일을 즐겁게 먹으면서 '우분트'라고 했다지요? 환경, 성격 등 다양한 차이를 서로가 받아들이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은 장애유아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90년까지만 해도 유아특수교육이 분리되지 않았던 때, 5년간 장애유아 특수학급을 맡아 일반유아와 통합교육에 노력을 기울였다. "통합교육은 일반유아와 장애유아의 동반성장을 이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합교육을 통한 '우분트'가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지성과 공감능력(감성)을 키워준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 '우분트(Ubuntu)'는 우리가 함께 있어 내가 있다, 즉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 성격 등 다양한 차이를 서로가 받아들이고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분트 교육이 중요하지요"

놀이중심 누리과정으로 수업 혁신

지역 특성상 다수를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그의 관심 대상이다. 삼기초 병설유치원에서는 방학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만나 음식 만들기, 영화 감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보듬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합니다. 지난 8월에는 6살 때 초임지에서 만난 아이가 38살이 되어 주례 요청도 받았네요(웃음). 사실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품은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현재는 수석교사로서 공·사립 교사의 수업컨설팅과 수업공개, 수업 멘토링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놀이로 공동체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놀이중심의 활동을 통해 수업혁신을 꾀하고 있다.

아이들과는 60분 블록수업을 하는데, 그는 10~20분 집중하기도 어려운 유아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잡아두기로 유명하다. "다양한 동화와 EBS 콘텐츠를 주제로 게임, 미술, 동극, 토의·토론 등 다양한 놀이를 구성한다."는 박 교사는 "놀이지만 어떻게 협동하고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본생활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활동을 고민한다."고 말한다.

'아이다움'을 지켜나가는 길

그의 요즘 고민은 아이들이 '아이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아이들이 동심을 잃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6세만 넘어가도 산타를 믿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면 "선생님은 산타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어요. 착한 행동을 하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잃으면 안 돼요."라고 말을 건넨다.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씨앗이 있기에 광활하고 풍성한 숲이 있듯이, 아이들의 꿈은 우리의 미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개의 다양하고 소중한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잘 발아되어 건강한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물과 햇빛과 공기의 조건을 맞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교사지요."

그는 퇴직 이후 악기 연주와 그림 그리기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의 유아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지낼 계획을 세웠다. 오지 여행가 한비야의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란 말을 되새긴다는 그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글_ 편집실

김정영 교사의 과학놀이 학생활동중심 수업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깨워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초과학 강화와 창의력 신장을 강조하지만, 실제 초등학교 과학교과 수업은 외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경북 문경 동로초등학교 김정영 교사는 과학교과에 놀이와 질문·토론수업을 적용, 학생활동중심 과학수업 모형을 개발·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1

"왜 꼬마전구가 아니라 LED를 사용하나요?"

"LED는 전지와 같은 극끼리 연결해야 불이 들어오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이 '위대한 질문판'에 각자 품고 있던 궁금증을 하나씩 적었다. 경북 문경 동로초등학교(교장 강신권) 2층 과학실. 6학년 1반 담임인 김정영 교사의 과학교과 수업은 이처럼 '위대한 질문'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날 수업은 학생들이 가장 흥미진진해 하는 '전기의 작용'에 대해 배우는 시간. 학생들은 전지를 어떻게 연결해야 LED에 불이 켜지는지, 전류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등을 직접 실험을 통해 하나씩 배워나갔다.

2

위대한 질문판에 담긴 우리들의 궁금증!
놀이에 질문 더하고 토론 통해 문제해결
호기심과 탐구능력 UP, 생각하는 힘 키워

1. '전기 미로놀이' 게임을 즐기듯 과학을 배운다
2. 문경 동로초 6학년 1반 아이들
3. 과학수업에 놀이와 질문, 토론을 도입하고 있는 김정영 교사

'발광다이오드에 불을 켜라!'

수업이 시작되면서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여한 첫 번째 실험과제는 '발광다이오드에 불을 켜라!' 애플팀 천재원 학생이 실험을 마쳤다면서 먼저 손을 번쩍 들었다.

"직접 실험을 해 본 결과 전지의 +극이 발광다이오드의 +극에 연결되었을 때 불이 켜집니다."

6학년 1반 10명 학생의 1차 실험과제가 마무리될 즈음 김 교사는 LED 불이 켜지는 원리, 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김 교사는 전광판, 전자제품, 도어록 등 일상생활에서 LED가 적용되는 예를 소개하면서 꼬마전구가 아닌, 왜 LED를 사용하면 실생활에서 이로운지 학생들에게 보충설명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전기 미로놀이' 시간. 전기선 미로에 접촉하지 않고, 출발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게임이다. LED에 불이 켜지지 않고 끝까지 이동하면 점수가 주어진다. 구글팀 이신비 학생과 김년준 학생이 한 조가 되어 도전했지만 1, 2차 시도 모두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점수 획득에 실패했다. 옆 모둠 애플팀에서도 연속해서 LED가 반짝거리기는 마찬가지. LED 점등으로 점수 획득에 실패할 때마다, 두 모둠에서는 동시에 아쉬움의 탄성이 터져 나오곤 했다.

3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과학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지점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능력 향상입니다. 교육현장에서 기초과학 강화와 창의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과학교과 수업 모습은 외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곤 했었죠."

김 교사가 과학교과에 놀이와 질문, 토론수업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 계기였다. 과학교과는 탐구능력,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실험절차와 재료들로 똑같이 따라하고, 정해진 결과만을 기대하는 건 문제라는 인식에서였다. 이후 김 교사는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되,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과학놀이 질문과 토론수업으로 과학수업을 대체해 나갔다.

과학교육 내실화 이끄는 선도교사

과학놀이 수업의 새로운 시도도 처음엔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과학놀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 사용법 등도 우선 알아야 했다. 김 교사는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대학원에서는 과학교육을 공부했다. 또 단순한 교과서 대체실험 과학놀이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크지 않았다. 김 교사는 e학습터 등을 활용하여 교과서의 실험을 사전학습한 뒤 본 수업에서는 실험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학놀이는 학생들에게도 생소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토론기법도 중요하죠. 실제 수업에서 기본적인 짝토론, 단원키워드로 말하기 등을 시작으로 자연스런 대화와 발표로 과학놀이 토론수업을 시작하곤 합니다."

김 교사는 이곳 동로초교를 비롯하여 지난 5년 동안 3개 부임학교에서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로 필수 실험교구 구비 및 과학실 현대화 사업, 과학도서 구축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추진해 왔다. 또 과학발명교실, 탐구중심형 과학탐구의 날 행사, 스마트 로봇활용 SW교실, 1박 2일 과학캠프 운영 등으로 교내 과학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과학경진대회 참가로 농·산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과학 꿈나무로서의 희망을 키워가게 하고 있다. 그동안 과학 분야의 많은 연구대회에 참가해 왔던 김정영 교사. 그러나 정작 대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와서는 왠지 모를 허전함도 느껴지곤 했단다. 그때 다시금 깨달았던 사실이 대회에 참가하는 소수만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실수업의 중요성이었다.

"아~하" 하는 감탄사에 실린 보람

"과학놀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자 노력합니다. 과학의 힘은 혁신, 4차 산업혁명, STEAM 교육 등과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또 교실 밖에서는 자연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정확한 앎을 전달해 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과학수업 시간의 시작을 '질문판'으로 열고, 수업 도중에도 '질문해결놀이' 등을 자주 활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1년 동안 과학놀이 수업에서 얻은 성과 중 하나로 김 교사는 아이들의 질문하는 힘이 부쩍 향상된 것을 꼽을 정도다. 때로는 아이들의 질문 속에는 그날의 학습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들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이가 궁금해 하는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김 교사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 김 교사는 지난 4년간의 과학놀이 수업연구 결과는 현재 아이들의 "아~하" 하는 감탄사가 되어 돌아오는 중이라고도 들려준다.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이 수업 모형을 개발한 보람을 느끼곤 한단다.

"학기 초에는 스포이트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아이들이 과학놀이 수업을 즐기게 되면서 과학을 좋아하는 꿈나무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실험할 때도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고,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키워가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김 교사의 과학놀이 수업연구는 2015년 발족한 '문경과학교사모임(MST)'과 함께 하고 있다. 현재 문경지역 25명의 초등교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방학 기간에는 '사제동행 STEAM 캠프'로 소외지역 학교를 방문,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교사는 "2019년에도 교사연수 등 MST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기초과학을 응용한 메이커 교육 연구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4. 과학놀이는 학생들에게도 생소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눈다.
5. 호기심과 탐구능력을 키우는 과학수업
6. 위대한 질문판에 궁금증을 적는다.

과학놀이 수업을 위한 TIP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하라

과학놀이 수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학습터 등을 활용한 교사의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실험과 놀이 등의 배경지식을 갖추면 수업의 성취기준 달성은 물론 실생활 응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교과서의 실험과 과학놀이를 융합하라

학생들은 대개 과학놀이 활동만으로는 수업에 만족하지 않는다.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과 과학놀이를 접목시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과학놀이 전용 질문판을 활용하라

과학놀이 수업 전용 질문판을 항상 준비해 둔다. 학생들은 질문이 생길 때마다 즉시 공유하게 하고, 수업 참가자들과 토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원별 마지막은 STEAM 수업으로 활용하라

단원별 마지막 순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과학놀이로서 STEAM 수업으로 진행한다.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이 한층 더 증대될 것이다.

글_ 편집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놀이마루

문화예술 옷을 입은 도심 폐교… 꿈을 꾸는 문화 놀이터로 진화 중

학생들이 평일 오후나 주말에 건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더 많이 조성돼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하교 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붉은 조형물 입구 뒤로 노랑과 주황의 색 조화가 돋보이는 4층 건물.

악기를 본뜬 하얀 철조각상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플라스틱 뚜껑으로 만든 벽화가 좌측 벽면을 가득 메웠다. 부산지역 80여 개 학교에서 병뚜껑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병뚜껑이 작가의 스케치를 통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우측 벽면에는 가로, 세로 15cm 나무판 1천여 개에 아이들이 다채로운 꿈을 그려 넣었다. 복도와 계단 곳곳에 그려진 캘리그라피와 벽화에 작가, 교사, 학생들의 솜씨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문화예술의 정취를 풍기는 이곳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놀이마루다. 학교 이전으로 폐교가 된 옛 중앙중학교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2016년 9월 문을 연 이래 25만여 명이 다녀가며 지금은 부산지역 청소년뿐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이곳을 찾은 연산중, 신라중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들여다봤다.

진로와 융합한 체험으로 인기 편리한 교통과 폐교 활용 성공요인 2020년 9월 제2놀이마루 개관

2

3

1. 무대 캐릭터 분장 체험
2. 지역 예술가로부터 직접 배우는 무대 디자인
3. 자유로운 내면을 몸짓으로 만드는 표현무용

뮤지컬·디자인·분장 등 '문화예술 놀이터'로

"상상을 뛰어 넘는 즐거움이 온다. 커밍~ 순"

한껏 고양된 목소리의 두 남학생. '공연기획' 팻말이 달린 3층 교실 문을 열자 10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 팀을 이뤄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목소리를 높인 두 학생은 공연 홍보를 위한 방송 녹음 리허설 중이다.

이 아이들은 친구들의 표현무용 공연을 기획하며 홍보 포스터를 만들고, 방송 광고를 위한 대본을 직접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기획 업무가 참 다양하다는 걸 배웠다."는 이들은 "자유를 몸으로 표현한 6장의 꽃잎 공연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싶다."며 활짝 웃는다.

바닥과 벽의 각종 페인트칠로 작업장 분위기가 물씬 나는 무대디자인실. 무대 소품을 직접 만들고 디자인하느라 아이들은 분주한 모습이다. 동화 「피터팬」의 한 장면을 무대로 만드는 팀은 장소, 시간, 인물, 의상 등으로 작품을 자세하게 분석한 후, 이날 하루 동안 무대 축소모형을 만들었다. 17년 경력의 무대디자이너 황지선 씨가 현업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을 이끈다. 황 디자이너는 "무대를 만드는 스텝에 대해 아이들이 잘 모른다. 직업 해보면서 재미를 많이 느끼고, 공연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직업군과 활동들을 알려주고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 「도깨비」 무대도 만들었는데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말한다.

옆 분장실에서는 무대 분장으로 여념이 없다. 분장도구를 활용해 무대 캐릭터를 재현해 보는 시간, 영화 <조커>의 모습 그대로 하얗게 분한 얼굴에 옆으로 쭉 찢어진 붉은 입술 분장이 아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문화예술과 연계한 진로 융합형 체험으로 인기

놀이마루는 폐교되어 책걸상이 사라진 공간에 문화·예술 옷을 입혔다. 뮤지컬, 무대디자인, 무대분장, 공연기획, 영화

제작, 힙합·랩뮤직 등등 줄지어선 공간부터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술가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진로 융합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뮤지컬(춤, 노래, 연기), 디자인(무대, 의상), 분장, 영화제작, 타악, 쿠킹스타일링 등 14개 문화예술 및 어울림 활동이 학기 중에 초·중등학교(초4~중3)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 예술가가 강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을 돕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킨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정임 표현무용가는 "방송 댄스를 보고 따라 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자기 몸짓과 움직임을 부끄러워한다. 멋을 위한 동작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움직여 보는 활동 위주"라고 말한다.

특히, 공연기획 프로그램은 매일 체험을 마친 아이들이 소극장에서 실제로 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학생 스스로 공연을 기획한다는 점에서 체험만 하고 돌아가는 다른 문화체험센터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이다. 백호정 놀이마루 센터장은 "매일 다른 학교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체험을 하는데, 연간 2만 5천여 명이 찾고 있다."며 "설문을 통해 학생, 교직원 등의 수요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수차례에 걸쳐 강사들과 수업 컨설팅을 한 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놀이마루 시설, 운동장 등 대여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지역 축제와 행사, 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청과 협약해 진행하는 '청소년 이동 쉼터'는 부산 서면 일대에서 방황하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동 버스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문 상담가 2명과 자원봉사자 의사 1명이 버스에 상주하며 식사,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교사·시민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학교 교육과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학생, 교직원, 시민 동아리를 위한 공간을 일과 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지원하고, 다양한 인문학 콘서트 등도 열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진로 융합체험을 심화해 지역 예술가가 연간 지정된 토요일마다 20회, 총 60차시에 걸쳐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기별 성과발표회인 '놀자별쇼(놀이마루에서 자란 별난 아이들 쇼)'를 통해 선보이는 성과물은 꽤 수준이 높은 편이다. 올해는 도시재생·건축설계 전문가와 함께 '내가 살고 싶은 서면'을 주제로 대형 도시재생 모형 등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는 시설 규모가 작아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 연간 초·중학교 154개교와 하루 240명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연초마다 학교 간 참가 신청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를 위해 2020년 9월에는 영도에 있는 동심중학교가 폐교되면 제2놀이마루로 설립될 예정이다.

백호정 센터장은 "전국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소수의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고, 대다수 학생은 학교-학원-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학생들이 평일 오후나 주말에 건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더 많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런 공간은 학생들이 하교 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는 놀이마루가 또 다른 특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물 운동장을 야간 개방해 이곳을 '문화예술의 난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오가는 이 지역에 문화예술의 활기를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타워 조명과 가로등을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들이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버스킹존, 스포츠 및 댄스존, 야외 작품전시존, 프리존 등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4. 복도에 전시된 학생 작품
5. 놀이마루 전경
6. 심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협업해 만든 도시재생 모형
7.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무대 의상을 선보이는 1층 전시실

INTERVIEW

"문화예술의 난장을 만들어갑니다"

백호정 놀이마루 센터장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 Q 개관 이후 2년 반이 흘렀다. 그간 성과와 의미는.

그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의 끼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가 되었고,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된 강사들의 입장에서도 후학을 양성하는 좋은 자리가 되고 있다.

● Q 놀이마루의 성공요인을 꼽는다면.

우선 놀이마루는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전포동, 서면 근처에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쉬운 물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폐교를 리모델링한 터라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기에 예산 책정이나 정책 수행적 측면에도 용이했던 것 같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력이 큰 몫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 Q 놀이마루 모델이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먼저, 학생들에게는 주지교과 위주, 입주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량 중 문화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진로 개척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런 활동이나 경험들이 선순환되어 학교생활이나 교과학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직원과 시민들에게는 평소 일에 찌든 삶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림으로써 현재보다 여유롭고 아름답게 삶을 바꾸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공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글_ 박은종 충남 광석초등학교 교장·공주대학교 겸임교수

교육비리 근절·신뢰 회복의 길

미래인재 육성은 기초·기본부터
신뢰 회복의 열쇠는 내재적 각성
교육의 본질인 '곧고 바름'의 체화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돼지띠의 해'다. 돼지는 부(富)와 복(福), 그리고 운(運) 등을 함께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올해 국운이 번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우리 교육도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은 교육계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사립 유치원 비리 부정 사건은 물론 스쿨 미투 사건, 2022 대입제도 개편, 제2기 국가교육회의 출범, 부실 비리 대학 퇴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개정, 강릉 펜션 고교생 사상(死傷) 사건 등 크고 작은 사회적 이슈가 이어졌다.

2018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부정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는 교육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 기초·기본으로 돌아가야

지난해 한국 사회를 불신의 늪에 빠뜨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부정 사건은 우리 교육의 적나라한 민낯이자 자화상이다. 이 두 사건은 국민들에게 교육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교육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국민들은 대입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등에 대하여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되었다. 학교의 모든 평가를 믿지 않는 분위기를 야기했다. 현행 유치원은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다. 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 부정 사건은 유치원 경영자(원장·이사장)들이 교육과 육영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망각한 채 학교인 유치원을 학원처럼 영리의 수단으로 치부한 일탈이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사립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경영, 급식, 학부모 부담금 등 전반에 걸쳐 냉소적 불신을 보이고 있다.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 공자(孔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이 나온다. 개인, 사회, 국가의 모든 일이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공염불이고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소임을 다하려면 우선 기초·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지향

2019년 교육부 업무 계획의 통합 비전은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다. 이 비전을 기반으로 미래와 신뢰라는 두 핵심 가치를 선정했다. 미래 가치는 다시 포용과 혁신으로 세부 영역을 나누어 포용, 혁신, 신뢰의 세 목표 아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을 토대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지원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은 교육공동체가 공감, 소통, 나눔, 배려를 바탕으로 본질 교육을 구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체제와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행복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비리를 근절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신고센터'와 '교육신뢰회복추진팀(가칭)' 등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유·초·중·고교 및 대학의 감사 결과 실명 공개,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 제한, 학사 비리 엄단 등을 천명했다. 아울러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대학평의원회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의 열쇠는 외재적 강화보다는 내재적 각성에서 찾아야 한다.

> 이 시대 한국 교육의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의 첩경은 '나 자신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올곧은 시작이다.

곧고 바른 교육과 정책, 청정·청렴한 생활 체화(體化)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극심한 불신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교육은 신뢰가 바탕인데, 그동안 크고 작은 비리와 부정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화급한 것이 교육 비리를 근절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교육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은 우선 기초 기본을 다지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은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 본질 바로 세우기와 직결된다. 교육 전반에 걸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가 준수돼야 한다. 소위 '갑질'과 '내로남불'도 사라져야 한다.

제2의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재직·재학하지 못하게 막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고,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 부정을 막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한다고 해서 저절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교육의 본질이 '곧고 바름'이라는 점을 깨닫고 청정·청렴한 생활을 오롯이 체화(體化)하는 것이다.

'나 자신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

교육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교단에서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 등이 사라져야 한다.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고질적 관행'도 불식돼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에서 창의, 인성, 혁신 등의 덕목이 강조돼야 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어울림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교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가르치고, 학생들이 마음껏 행복 꿈·끼를 펼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돼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보호돼야 한다. 또 교육정책의 방점을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찍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중심 행정, 학생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기초 기본 바탕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랑, 존경, 공감 속에서 서로 신뢰를 보듬어주는 '행복교육 오케스트라'를 함께 연주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육은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적 성찰 속에서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시대 한국 교육의 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의 첩경은 '나 자신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올곧은 시작이다.

글_ 편집실

2019

도표로 읽는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일정규모(200명) 이상
유치원(600여개) 우선 사용

공정한 내신을 위한 학생평가 관리 강화

보안강화, 관련자 처벌규정 명시
시험지 유출 처리기준 마련
상피제도 추진

사립학교 취업 제한

3년 ⇨ 6년

교육부 퇴직공무원
문제발생 사립대학
총장 취업제한

사립 초·중등학교 및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취업도 제한

같이 출발하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유치원의 공공성과 질 강화

국·공립유치원 확대

40% 조기달성
'19. 1,080 학급 신설

방과후 놀이유치원

'18 51개
'19 500개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통학차량 지원,
돌봄확충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 저학년 한글 책임교육

한글 또박또박 등 활용
(웹기반 한글 책임교육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 학교

2,720교 '18 ⇨ 3,700교 '19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어려운 학생도 걱정없이 받는 교육

유아 학비지원

유아학비
(월10만 원)
추가지원

교육급여 인상

초등: '18 11만6천 원 → '19 20만3천 원
중·고: '18 16만2천 원 → '19 29만 원

고등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
('19.) 하반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록금 절반 이상 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18	31.9%	692,282명
'19	33.2%	700,024명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보다 안전해집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 보호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FRESH AIR '19 단계적 확대 ⇨ '20 전면 설치 완료

교실 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미세먼지 유지 기준 강화

PM10 100㎍/㎥ → 75㎍/㎥

통학과 학교생활 안전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확대

'18 500대
'19 700대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학교노후시설 개선 예산

2,73조 '18 ⇨ 3,43조 '19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성장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실시

5,688억원 대학
2,908억원 전문대

국립대학육성사업

800억원 '18 ⇨ 1,504억원 '19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NILC+사업

'18 2,813억 원
'19 3,469억 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10교 '18 ⇨ 20교 '19

먼저 취업하고, 쉽게 새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모든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배치

100명 '18 → 400명 '19 → 1,000명 '20

어디에서나 손쉽게 받는 교육

K-MOOC 강좌확대

K-MOOC '18 500개 → '19 650개

방송대 모바일학습 콘텐츠 확대

'18 1,016개 → '19 1,320개

재직자 역량 개발 활성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전문대학까지 확대

161억원 '18 → 241억원 '19
4년제 21교 → 4년제 20교
전문대학 6교내외

글_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장

최저임금,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첫걸음!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첫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公 비정규직 39,260명 정규직 전환 추진
저임금 근로자 위한 '일자리안전자금' 운영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버팀목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가 한 달 동안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 급여가 174만 5,100원이 되며, 2018년 157만 3,770원보다 17만 1,38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시행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저임금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임금소득의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첫걸음으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가족의 삶의 질 보장

그렇다면 우리 교육가족의 상황은 어떠한가? 교육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가족들이 모두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의 논의가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한정하여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 분야에도 예외 없이 최저임금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과제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종 중의 하나는 학교의 청소 용역 근로자이다. 작년 이맘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사립 대학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청소 경비 인력을 감축하거나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여 교육가족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학교 구성원 간 이해와 협력으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많은 대학에서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청소 경비근로자들을 그 동안의 간접고용형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직고용으로 전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소속감을 높여 주었다. 대학이 담당해히 할 사회적 가치와 책무를 실현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일이다.

최저임금과 교육분야 비정규직

사실 최저임금의 문제는 대학에 한정하여 볼 사안이 아니다. 시·도교육청, 국립학교, 국립대학, 국립대 병원 및 교육부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하였다. 41개 국립대학, 5개 국립특수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등 28개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고용축소나 근로시간 단축 없이 교육계의 양극화 해소에 선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지난 2017년 마련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관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33,266명, 국립대학 및 특수학교 3,583명, 공공기관 2,411명 등 '18.12월말 현재 총 39,260명의 비정규직이 앞으로 정규직 또는 직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5만 원(5인 이상은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경제적인 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버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한 모든 교육가족들의 협력과 노력이 더 없이 필요할 시기이다.

최고의 복지정책은 '교육정책'

교육정책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들 말한다. 교육정책을 통해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만들 수 있고, 교육 양극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비전이 담겨있다.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전달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시행이 교육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글_ **최연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협력단장, 『4차 산업혁명과 인간의 미래』 저자

4차 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모두가 행복한, 완벽한 혁명이란 없다
양극화 심화, 20% 기회, 80% 위기 사회 경고
과학기술이 인간 위협하는 왜곡 현상 우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생산의 도약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때부터였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굴지의 산업대국으로 부상한다. 하지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농업 및 가내수공업에서 공장제 생산으로의 이행을 야기했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은 프랑스 혁명 시기만큼이나 혼란이 극심했다. 방직기가 노동을 대신하고 일자리를 빼앗자 위기감을 느낀 공장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격렬히 전개하기도 했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영국에 머물면서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1845년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라는 책을 출간해 도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고발한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가내수공업을 겸업하던 소농들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생산수단을 빼앗겨 공업 프롤레타리아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된다.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나 도시빈민이 참담하게 살았던 사회상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 『어려운 시절』 등에도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다. 어쨌거나 산업혁명은 혼란과 모순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모순

1차부터 3차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우리는 바이오, 물리, 디지털이 연결·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 미래에는 인공지능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사물인터넷으로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빅데이터 분석 덕분에 보다 객관적 변화예측이 가능해지고, 블록체인 기술로 은행 매개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며, 거리에는 자율주행 무인자동차들이 다니게 될 것이다. 첨단과학기술 발전은 분명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위험, 사회적 모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변화에는 혼란이 따르며, 혁명적 변화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두가 행복한, 완벽한 혁명이란 있을 수 없다. 프랑스 혁명이건, 산업혁명이건 모든 혁명은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4차 산업혁명의 격변도 빛과 함께 그림자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미래예측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20%에게는 기회, 80%에게는 위기인 20:80사회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4차 산업혁명은 유토피아에 대한 약속도, 장밋빛 미래 희망의 청사진도 아니며,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류 진보의 가능성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인류에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도래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일자리, 산업, 경제면에서 야기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과 함께 자동화, 지능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고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력이 높아질 것이며 인공지능, 컴퓨터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단순반복적인 일자리나 비숙련 노동은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수 있어 대량실업이 야기될 수 있으며, 숙련 전문직, 창의적 일자리가 아닌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질 것이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원격교육과 재택업무가 일상화되고 클릭 몇 번으로 쇼핑을 하고 지구상 어디에 있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원하지 않는 위험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과 연결해주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해킹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서로 연결된다면, 철학자 폴 비릴리오의 경고처럼 우리는 '사생활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항상 연결되지만 정작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는 대면접촉은 줄어들고, VR, AR을 이용한 간접·가상경험은 늘지만 몸을 움직이는 직접경험은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예견된다. 일찍이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산업사회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사회라고 주장했다. 산업화나 기계화는 핵 위험, 환경위험, 고용위험 등 새로운 위험을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미래사회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초지능화 될 것이다. 데이터, 정보, 지식의 축적과 발달은 점점 빨라지고, 인간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식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인스턴트 지식이나 실용기술은 빠르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반면, 성찰적 지식이나 인문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기계와 공존하다 보면 인간은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인간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

첨단기술 개발, 과학지식 확대, 문명 이기의 확대는 인류 역사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과학기술 발전의 주체는 인간 자신이어야만 한다. 만약 인간이 과학기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왜곡된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편리함과 편익, 효율성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며, 기술진보로 인한 위험과 부작용도 예측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영국의 스릴러 작가 리 차일드의 시리즈물 중 소설 『메이크 미』에 보면 "희망은 최선을 기대하며 품는 것이고, 계획은 최악을 대비해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으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예견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만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들과 소통하는, '우리가 유튜버 선생님' 화제

인천송천초등학교 박경현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꼬마TV'(https://www.youtube.com/user/japster1980)가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영화와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서 학생들과 단편영화를 10년째 찍고 있는 인천송천초등학교 박경현 교사이다.

박경현 교사가 운영하는 꼬마TV(유튜브)는 학생들과 학급활동 혹은 학교 내 동아리활동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만든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는 초등학생 단편영화 채널이다. 박경현 교사는 게임방송 위주의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초등학생들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꼬마TV를 만들었다.

박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학생들의 성격이 많이 바뀌는 것이 보람되고, 항상 문제아로 취급받던 학생이 영상을 통해 협업하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아 성격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꼬마TV에는 초등학교 단편영화 딱지왕(675만 조회수)과 액체괴물의 요정!(인천어린이촬영대회 최우수 1등 수상, 133만 조회수) 등의 단편영화들과 초등학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민상담소, 학생이 만든 뮤직비디오, 학교폭력을 다룬 학폭위 설명영상 등 48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영상 당 조회 수가 상당히 높아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박경현 교사는 "영상제작활동은 동아리활동에서 진행하고 있고, 영상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으면 뉴스 영상 촬영 같은 교과활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교과에 맞게 동기부여영상으로 사용하거나, 토론의 주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주변 선생님의 경우 1학년 수업을 하면서 생활습관이나 인성 관련 주제가 많아 동영상이 요긴하게 사용하였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에 대해 박경현 교사는 "소통, 공감 등의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정보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학생들의 취향과 성향이 고정적이지 않게 되면서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면서 책임감도 알고 공적인 자리에 대한 느낌도 알게 되는 등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한다."면서 "자극적인 영상과 거짓정보가 많은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체널이 없다는 것이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조언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꼬마TV와 협업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 유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훈훈하다~ 훈훈해" 확 달라진 졸업식 풍경

딱딱한 행사와 사진 찍기 바쁘던 졸업식 문화는 이제 옛말이 됐다.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으로 학생들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물하는 이색 졸업식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4일 열린 홍천 내촌초등학교 졸업식에는 졸업생들이 부모님께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다. '고맙상', '라이프상', '이해상', '참부모상' 등 독특한 상장 제목은 졸업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직접 지었다. 부모님을 위한 깜짝 이벤트였는데,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해 몰래 편지를 준비해 훈훈함이 넘쳤다고.

같은 날 열린 춘천 금병초등학교 졸업식에서는 '아빠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졸업생 아빠 20명은 색소폰, 기타, 피아노 연주에 맞춰 합창을 선보였고, 아이들과의 추억이 담긴 축하 영상을 직접 제작해 감동을 줬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는 졸업식도 늘고 있다. 평창 진부고등학교는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사연을 라디오 형식으로 전달하고,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횡성 현천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준비위원회를 꾸려 졸업앨범도 직접 만들었다.

졸업식은 이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학교문화가 드러나는 축제로 바뀌고 있다.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안기려고 노력하는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전라남도교육청 서정초, 교과서 속 '움집 짓기'로 배우는 노작교육

서정초등학교(교장 김영성)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움집을 지어 보기로 했다. 3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자연에서 얻은 도구를 사용하던 옛날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코너에 나오는 '움집 만들기' 체험 프로젝트이다.

튼튼한 움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학생들은 우선 움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세 팀으로 나눠 한 팀은 움집 재료인 볏짚을 이용한 것들을 알아보고, 다른 한 팀은 재료를 구했으며, 마지막 한 팀은 짓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했다.

교직원들은 학교 주변을 정리하면서 베어낸 나무와 가지를 이용해 기둥을 만들었다. 새끼 꼬기와 이엉이 필요함을 알고 새끼 꼬기 방법을 아는 교직원을 섭외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아이들은 새끼 꼬기 방법을 익혔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중간놀이 시간과 점심시간에 새끼 꼬기 작업을 해 200m 가량의 새끼줄을 만들었다. 이엉도 6개를 엮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된 지난달 1일, 3~4학년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2m80cm 정도의 큰 기둥 6개를 둥글게 세워 고정하고, 사이에 작은 나뭇가지들을 끼워 초벌을 엮었다. 그리고 이엉을 몇 차례 겹쳐 두르고, 새끼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측면으로 묶어 바람에 이엉이 날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면서 움집을 완성했다.

움집을 완성한 뒤 학생들은 선생님과 토의 시간을 가졌다. △움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인지? △움집은 짓는 계절은? △움집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움집과 비슷한 형태의 집은? △그리고 움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과 어떤 점이 크게 다를까? △화재에 취약한 움집에 대한 해결책 등에 대한 다양한 토의 활동이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됐다.

학교 교육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토의활동까지 이어지면서 지식으로만 배우는 교육이 아닌 직접 노동을 통해 체험하면서 배우는 노작교육 현장이었다.

3학년 윤이든 학생은 "움집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움집을 지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영성 교장은 "교과서에 나온 움집 만들기를 직접 시도한 학교는 아마 우리 학교뿐일 것"이라며 "학교 교육이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 아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길러주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중3 내신산출 후 스포츠클럽대회, 인기폭발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학생과 교사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대회는 북부교육지원청이 내신산출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여가선용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 12월 처음으로 열었다. 학생들은 축구, 농구, 피구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인근 학교와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했다.

축구는 24개교 396명이 참가해서 예선 16경기, 16강전,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거치면서 쟁쟁한 우승후보들을 물리친 주감중학교가 첫 해 우승트로피를 가져갔다. 경기 도중에는 응원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학생들과 참가자가 다같이 참여하는 지그재그 드리블, 킥 멀리차기, 트래핑 오래하기 등 이벤트 경기를 진행해서 축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더 높였다. 16개교 192명의 학생이 참가한 농구는 신덕중이, 6개교 108명의 여학생이 참가한 피구는 용수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를 주관한 중등교육지원과 이훈식 장학사는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스포츠를 통해 존중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적극 협력해 준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체육 선생님들께 감사한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완초, 벽에 작두콩 심어 건물온도 낮추고 콩차는 판매

수완초등학교 전교학생자치회가 작두콩으로 환경보호와 사랑나눔을 동시에 실천했다. 12월 10일 수완초 학생회는 '녹색커튼' 활동 수익금과 '사랑의 저금통'을 합한 성금 174만 원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수완초에서 열린 전달식엔 유너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가 직접 참석했다.

수완초는 올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일환으로 '지구온도 1℃ 낮추기 프로젝트-녹색커튼'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4월부터 운영했다. 녹색커튼은 건물 외벽에 덩굴식물을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설이다.

수완초 학생회가 선택한 덩굴식물은 '작두콩'. 학생들은 4월에 너비 70m에 달하는 학교 외벽에 모종을 심어 키웠다. 이후 학교는 녹색커튼을 활용해 과학교과의 '식물의 한살이' 관찰하기, 국어교과의 '시화 그리기' 및 '토의·토론', 실과교과의 '식물 가꾸기' 등 융합 수업을 실시했다. 8월이 되자 학생·교사들은 수확에 나섰다. 수확량은 말린 작두콩차 20kg. 70g씩 포장한 작두콩차 완제품은 유네스코 ESD 박람회와 학교 축제에서 총 145개를 판매했다.

그렇게 마련된 수익금은 72만 5,000원. 유네스코에 기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학생회는 학급별로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를 시작해 102만 2760원을 모았다. 이렇게 만든 총 성금 174만원을 12월10일 전달식에서 건넸다.

수완초 학생들이 기부한 돈은 아프리카·아시아 14개국 교육활동에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백승현 전문관은 "ESD는 유네스코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수업을 통해 기부를 한 수완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사랑의 온도가 몇 ℃는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_ 이인수 고등학교 교사(교육학 박사)

직업계고 현장실습 학습권·근로권 동시 보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성 강화

❶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 산업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❷ 지역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
❸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
❹ 현장실습 제한 직종과 업무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
❺ 학생 학습권, 근로권 보장받기 위해선 법적 지위와 규율체제 모색

직업계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는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학교이다. 그렇기에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게 교육목적에 부합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습중심'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조기취업의 목적으로 산업현장에 파견되는 '근로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2017년 1월 한 이동통신회사 전주지역 콜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하던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등졌으며, 그해 11월에는 제주지역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잇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7년 12월에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2018년 2월 다시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 시행

또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 당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보다 2배 더 많은 30 ~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둘째, 표준협약서에 6개의 중요사항(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정,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을 적시하고 이들 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산업체는 한 건당 20 ~ 8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는 무엇보다 취업이 중요한 학생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장실습생 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과 2017년 현장실습생 10명 중 7명이 월평균 120 ~ 160만 원의 임금을 받은 반면,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시행된 2018년에는 10명 중 8명이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과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았지만, 현재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현장실습수당만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의 보완 노력 필요

정부가 발표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2018. 2.)」에 따르면, '안전한 현장실습 및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 보완' 전략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실습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한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 발굴 및 인정이다. 둘째, 현장실습 유형 및 교육과정 재설계이다. 셋째,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채용 시기 탄력적 조정이다. 넷째, 산업체 현장실습 관리 및 학생 지원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성과 관리 개선이다.

한편,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이 정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운영을 적극 수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하여 해당 정책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향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하는 등 정책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향 제언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실습 관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학교 및 교사뿐만 아니라 산업체를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도 본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만 운영되던 현장실습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 관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조직은 학내 구성원만으로는 산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셋째, 교사와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을 함께 받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1차적 보호막인 교사가 학생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한 직종과 업무를 법으로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미국은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서 현장실습 금지 영역을 연령별로 제시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학생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습유형(예 : 직무 체험형, 취업 연계형 등)을 체계화하고 그에 따른 법적 지위와 규율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은 웹진(http://happyedu.moe.go.kr) 에서 확인하세요

글_ **양지훈** 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안전성 검증된 실습, 취업 연계 가능한 산업체 발굴을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성 강화

❶ 현장실습은 조기취업이 아닌 '학습'의 개념으로
❷ 학교-산업체, 체계적 현장실습 과정 만들기 필요
❸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학교 현장에서의 현장실습 ing

직업계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에서 현장실습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은 최근 들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직업계고에 근무하면서 현장실습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현장실습 전 안전교육,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 확인, 산업체 방문을 통한 현장실습 지도 등의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현장실습의 안전성은 어제 오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2017년 3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을 때, 반에서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갔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전화도 하고 현장실습 산업체에 찾아가서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어떤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담당자와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는다.

현장실습 ≠ 취업, 산업체는 제2의 학교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취업은 본인의 전공과 연관되고 본인이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마치고 일을 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많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졸업 후에 채용하다 보니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현장실습을 나가면 산업체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는 조기 취업으로 생각한다.

학생들과 산업체는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직업교육과 연계하여 산업체에서 실습을 배우는 것이다. 아직 현장에서의 취업으로 인한 직원으로서 일을 하는 단계가 아니다. 즉, 현장실습은 '일'이 아닌 '학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습'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에서 하는 실습이 취업 후 하는 일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현장실습은 취업 후 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일이 아닌 학습과정의 한 부분이다. 즉,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보고 전공과 연계하여 실습을 통한 교육적 측면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학교와 산업체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통하여 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실습 과정 만들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학교에 적용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학습자 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학교, 산업체,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성을 포함한 학습자 중심의 현장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실행과 결과 단계를 산업체 간에 공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산업체 간의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나눔을 통하여 보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산업체, '학습 중심'의 체계적 현장실습

학생 모두에게 귀 기울이기

학생들은 무수히 많은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이러한 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에 직업계고 상당수의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불편함 없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현장실습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하고 있다.

현장실습 나가기 전,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현장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언제든지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현장실습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직접 산업체에 가서 현장실습 과정의 학생들을 보면 해당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매일 실습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현장실습의 안전성과 취업 연계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면서 현장실습을 결정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산업체를 결정하는 경우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의 산업체를 결정할 때, 산업체에 취업 희망 여부와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어떤 현장실습을 하고 현장실습 여건 등은 어떤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담임교사와 전공교사, 관련 직무에서 일하는 전문가 등과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외에도 현장실습이 끝난 졸업생에게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업체 현장실습 준비는 우리 모두!

학생들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학습이 중심이 되는 현장실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학교와 산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산업체와 전공 교과연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장실습을 운영하거나 계획을 준비한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거나 현장실습 운영과 실습 교육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워 체계적인 현장실습이 가능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이를 수용하는 학습 가능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수용인원은 부족하다. 주변에 산업체가 적은 직업계고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하고 취업과 연계 가능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산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한다.

현장실습 안전성을 검증하고 취업 연계 가능한 산업체를 짧은 시간 내에 발굴하기는 어렵다. 자칫 현장실습 산업체 수와 취업률 등 수치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무분별한 현장실습 산업체 확대로 안전성이 미흡한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현장실습과 취업이 될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현장실습과 취업과 연계 가능한 산업체를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산업체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위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번외편

명예기자들의 썰전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말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교장이 자체 종결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않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요. 뜨거운 논쟁, 지난 호 <교육 썰전>에 대한 명예기자판 썰전을 들어보실래요?

법이 아닌 생활교육으로 접근해야

현행 학교폭력제도는 학교폭력이 '괴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육으로도 풀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도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과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다 보니 현장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교사를 정하느라 눈치 싸움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을 법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생활교육으로도 해결 가능하게 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윤 초등교사

생활교육과 인성교육 차원의 접근에 동의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서로 증인이 되어 피해를 보는 왕따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 처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지요. **안정미** 중등교사 이대송 특수교사

학교폭력전담 변호사 배치해야

최근 경기 부천 지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부모 연수, 학생 토론, 교사 직무 연수 등의 방법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와 더불어 전국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조원표 초등교사

예방 차원의 전담 인력 필요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에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전담 변호사가 배치됐습니다. 2017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으로 학교폭력전담 변호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 운영부위원장으로 한 표를 던진 생각이 납니다. 1인당 5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도움이 된다면 지원해야 하지요. 한 가지 더 학교 Wee센터 상담선생님의 잦은 인사는 학생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 근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백희 학부모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조사담당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상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 많이 필요하더군요. 지금도 학교폭력 예방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일어나기 전에 예후는 분명 있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알기 힘들지요. 지역교육청에 변호사 배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의 전담 인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문승욱 교직원

학교폭력 발생 때부터 전문가 투입 중요

학교폭력은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개선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야 합니다. 교실 면적당 학생 수를 줄이면 좁은 공간에서 발생해 왔던 갈등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김순녀 대학 강사·조선영 학부모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만 전념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처럼 학교 밖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했으면 합니다. 해당 학생이 직접 학교폭력 전담 경찰이나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이나 징후가 보이면 신고하는 것(신고자 비밀보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부터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참여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기윤 중등교사·박경은 교직원

학교폭력은 중한 경우 바로 시법의 힘 개입해야

학교폭력을 학교 안의 문제로 별도로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은 범죄이므로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학교이든 길거리이든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지도로 가능한 쌍방의 다툼, 경미한 놀림 등은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도 학교 안의 일로 치부해 학폭위를 열고 거기에서 결정한 의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조처를 내리는 현행 제도에서 우리는 악질적인 가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중한 경우에는 바로 경찰과 사법제도의 힘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김민중 초등교사

희망교실 확대로 폭력성 줄여야

예방의 일환으로 부적응 학생을 위한 희망교실 운영을 확산하면 아이들의 폭력성을 다른 곳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교실은 선생님 1명과 위기 학생 5여 명이 진로체험과 문화 활동 등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와 학생의 신뢰가 쌓이고 관심을 받게 되면 학교폭력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미경 학교 영양사

글_ 김성효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세상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해외 교육봉사

한글학교에서 느낀 봉사의 의미
'책씨앗 프로젝트'로 첫 발
교사 6명과 뜻 모아 교육봉사

2015년 가을입니다. 동남아시아 한글학교 연합 교사 연수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멀리 쿠알라룸푸르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 학급경영과 진로교육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한글학교는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야학 비슷한 주말학교입니다. 아이들은 잠시 이주하다가 떠나기도 하지만 학교는 그대로 남아 또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사를 가르쳐야 해서 붙박이로 일할 수 있는 선교사나 현지에 이민한 교포들이 한글학교에서 주로 봉사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튿날 강의가 끝나고 저녁 늦은 시간 보르네오섬에서 오셨다는 어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길 가다 만나면 금방 잊힐 것 같은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글학교에서 몇 년째 봉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13년째 하고 있어요."
"와, 긴 시간이네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않고 저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힘든 날 참 많았지요, 선교사 파송 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본국 지원이 끊겼어요, 친척들이며 친구며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오만 원, 십만 원씩 보내주는 돈으로 근근이 살았어요, 남편이 그러다 쓰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제때 병원에 못 갔어요, 나중엔 한쪽 몸도 못쓰게 됐지요, 하루는 쌀이 떨어져서 아침에 '하나님, 이거 다 먹으면 저희는 더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기도를 하면서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쌀독에 쌀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를 쌀이 항아리에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한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봉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한글학교에 아이들 가르치러 가면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러 갔어요, 한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았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주말마다 아이들 얼굴 보면서 가르치는 일이 감사하고 좋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당장 점심에 먹을 쌀을 걱정하면서 아침에 집을 나서야 하는 이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어쩌면 사랑과 감사라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무기를 남겨두신 게 아닐까 하는.

한글학교에서 시작된 해외 교육봉사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책씨앗 보따리>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한글학교에 한글동화책을 보내주고 방학 때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죠. 2016년 1월에 코타키나발루 한국학교에 여섯 분의 선생님(김다솜, 김민수, 김소현, 장은정, 최서영, 김기수)이 봉사활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교대생에서 신규교사, 경력 10년 차의 현직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력의 선생님들이 직접 동화책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아이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저도 2016년 10월에 코타키나발루 한국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직접 본 학교는 훨씬 열악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익힌다는 게 참 신기하고 대견했습니다.

필리핀 불법체류자들이 모여서 사는 수상가옥 마을에 있는 눔박소망학교에도 가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눔박소망학교가 아니면 말레이시아어를 배울 수도 없고, 간단한 셈하기조차 배울 수 없지요. 눔박소망학교에는 현재 25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뻔했던 것도 여러 번이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텨 왔다고 합니다.

비가 새는 지붕 아래서 어떤 교구나 재료 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로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곳도 훌륭한 배움의 터전이 되는 것이라는 걸 몸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교육 행정가들이 그런 곳에서 글자를 배우고 셈하기를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난한 마음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교육봉사에 뜻이 있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 세워져 있는 한글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배움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심는 사람입니다.

글_ **김서규** 유신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매우 조용하고 평범한 효준

알고 보면 평범한 아이는 한 명도 없다. 부모조차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 힘겨워할 때 지나치기 쉽다. 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힘겹게 살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아이 내부 문제에 주목
알아주기만 해도 큰 도움
잦은 만남과 대화로 변화

효준 문제

효준이를 알게 된 건 효준이의 친구 정식이가 상담실에 와서 얘기하던 끝이었다. "선생님, 걔는 좀 이상해요. 노숙(老熟)해요." "노숙한 게 뭐니?" "현자모드(賢者mode)로 살아요. 말도 별로 없고요. 끼어들지도 않고 끼워줘도 흥이 없어요. 아뇨, 예의상 좀 어울리는 정도긴 하죠. 착한 애인 건 맞는데, 얘기하다 보면 아닌 것도 같고요. 아, 맞다.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을 노려보면서 피식피식 웃어요. '너 왜 그러니?' 물어도 대답 안 해요. 선생님, 이거 상담이 필요한 거 아녜요?"

중하위 성적에 품행은 정상인 듯 그리고 학급에서 있는 듯 마는 듯 하는 아이, 막상 대해보면 뭔가 간단치 않은 분위기에 속을 내보이기 싫어하는 아이. 실력에 비해 자존심이 의외로 센 아이, 세상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게 짜증 내면서 마치 넙치처럼 바닥에 가라앉아서 이목을 피하는 아이. 현행 학교제도 내에서 이게 무슨 개인 상담을 할 꺼리가 되나?

효준 진단

정서행동검사 수치를 빌미로 효준이를 상담실로 부르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다.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담할 시간이 없으며, 상담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상담선생님에게 할 얘기가 없으며 자신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 잘 다니는 중이라고 했다. 효준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담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침을 뱉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성을 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든 뭐든 불편해 죽겠으니 빨리 보내 달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불손과 경멸과 짜증을 가득 풍겼다.

상담선생님이 '사실은 네가 여름 방학 때 경기장 뒷길로 가다가 어떤 여자분의 유방을 움켜쥔 적이 있지? 그 여자분이 운동선수여서 너를 잡아서 성추행범으로 경찰서에 넘기려다 학교로 전화해서 '학교 선생님이 책임지고 교육하신다는 조건으로 학교에 넘길게요.' 했잖니? 00선생님이 그 전화를 받아서 그 여자분께 너 대신 싹싹 빌고 조용히 처리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담을 받는 거야.' 하자 효준이는 무너졌다. 이래서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아이에겐 성추행도 문제지만 이 아이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그게 더 큰 문제다.

효준 지도

효준은 성추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노출했다. 그러면서 '내기 보기에도 나는 재미도 없는 아이고 남들이 보면 더 그렇게 보일 것'이라 했다. 이것은 현실 문제 너머 저 밑에 있는 자아상을 드러내는 말이고, 아이의 아픔이 엉겨있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효준이에게 있어서 성추행은 명백히 청소년 범죄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재미없는 일상에 드라마틱한 요소를 도입하는 시도라고 할 수도 있다. 상담선생님이 언제부터 재미없는 아이가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다.

효준이의 고향은 남쪽 바다 어떤 마을이었는데, 아이들끼리 작은 포구에서 정답게 뛰어놀던 동화 같은 곳이었다.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들은 도시로 이사하셨고, 그는 친구들을 모두 잃고 갑자기 낯선 도시로 옮겨졌다. 낮엔 공교육 밤에 사교육에 시달리면서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삶은 힘들었고, 옛 세계는 그립고 새 세계는 낯설기만 했다.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지만, 친구들도 서서히 변해가고 마을도 변해가고, 옛 마을도 새 도시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제멋대로 굴러가고 있었고, 그는 아차 하는 사이에 노바디(nobody)가 되어있었다.

효준이는 비유하자면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오는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든 아이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들의 이름, 이젠 별처럼 너무나 아슬히 멀리 있는 그들'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 효준이는 마치 18세기 유럽인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 마을을 떠나 도시로 올라가서 격렬하고 비인간적인 산업화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먼지처럼 바뀌는 니힐리즘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정식이가 바라본 효준이는 사라진 옛 세계를 그리워하면서 차가운 새 세계에 냉소를 보내는 중이었다.

억울은 알아주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잿빛 도시에서 걸어 나온 무의미한 선생님이, 즉 효준이에겐 '아웃 오브 안중(out of 眼中)하던 선생님'이 의미를 띠기 시작하자 주변의 사물들도 방긋 웃으며 인사했다.

둘은 계속 만나서 얘기를 했다. 드디어 효준이는 냉소적인 태도를 거두고 다시 싹싹한 시골 소년의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후 효준이는 친척이 하는 택배회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아마 할아버지 생신 때 근처 친척들 집으로 뛰어다니며 '빨리 저녁 먹으러 오시래요!' 하고 외치던 일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닐까?

지적장애1급 자녀를 키우는 이인옥 학부모의 기고글

입학식날, 슬금슬금 피하던 아이들 “라율아~ 넌 그냥 좀 느린 친구야”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둔전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는 여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라율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생후 6개월 때 대학병원에서 판정받아 현재 지적장애1급으로 통합학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한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지난날을 생각하며 떠올리는 감사한 사람들 가운데 제 아이의 스승이자 평생 못 잊을 저의 은사님이 되실 세 선생님. 통합학급 담임선생님 조지연 선생님과 특수학급(한울림반)의 담임이신 최영아 선생님. 그리고 제 아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활동 보조 선생님(활동보조인) 변형숙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적장애1급 딸, 일반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오늘 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말이 무색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에 보낼 즈음에 안양관내 특수학교에 신청했으나 떨어졌고 일반학교 특수통합학급을 알아보던 중 둔전초등학교를 만난 건 어찌 보면 저와 제 아이에게 무척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지적장애 1급이었던 제 아이는 뇌종양으로 발달지연이 된 상태라 12개월 언어와 행동이 돌쟁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똑 부러지게 자기이름을 말하고 쫑알쫑알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자식이라면 그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그저 학교에서 실수 안하고 아이들과 별 탈 없이 잘 지내며 수업시간 40분 동안 이탈하지 않고 급식 잘 먹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이 하늘에 닿았는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을 너무나도 제대로 만났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날의 추억은 너무 생생합니다. 입학 첫날 당시 1학년 5반 담임선생님은 조지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엄마아빠 손을 잡고 1학년 교실로 들어가자 조지연 선생님께서 라율이에게 눈과 키를 맞춰주시며 “어머 우리 라율이 왔구나! 어서와.” 하셨습니다. 사실 입학 전에 특수학급 아이들 엄마와 통합학급, 특수학급 담임선생님들과의 미팅이 있었고 아이의 상태와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가를 OT처럼 접하게 되어 어느 분이 제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될지 모르나 그런 OT를 진행함에 학교에 감사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구면인 선생님께서 너무도 반가이 맞아주심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맨 앞에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고 옆에 앉은 친구에게 라율이를 소개하며 조금 아픈 친구이니 우리 다 같이 친해지도록 하자며 옆자리 친구에게 겁내지 말라는 듯 다독이심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율이가 아기처럼 말을 하자 친구는 그 자리가 무척 불편해보였고 이윽고 라율이와 멀리 떨어지고 싶다는 듯 책상과 의자를 조금씩 옮겼습니다. 이 날을 잊을 수 없는 건 우리 라율이를 슬금슬금 피하던 그 아이가 1학년을 마칠 때는 라율이를 예뻐해 주는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 아이들이 라율이를 그냥 좀 느린 거북이 같은 친구처럼 대했으며 그렇게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조지연 선생님이셨습니다.

“라율이가 너희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도 라율이를 통해 배울게 있단다. 그러니 라율이를 친구로 존중해주길 바란다. 라율이가 내는 소리는 산속에서 들리는 나뭇잎 스치는 소리, 길에서 달리는 자동차 소리처럼 별거 아닌 일상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리를 낸다고 쳐다보거나 이상하다는 듯 볼 이유가 없다. 라율이는 금방 멈출테니까.”

라율이의 활보선생님께 들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라율이를 친구들이 늘 이렇게 대하도록 말씀해 주신다고요.

선생님·친구 도움으로 완벽했던 학교생활

그래서 저는 우리 라율이가 참으로 축복받은 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너무도 완벽한 초등학교 1학년을 보냈고 1학년 친구 엄마들조차 라율이에게 인사해주고 친구들이 일기장에 라율이 이야기를 쓰기도하고 생일파티도 함께 하며 이처럼 초등학교의 시작을 평안하게 이끌어주신 조지연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라율이를 낯설어 하지 않는 고마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잘 만나 2,3학년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반 지금의 담임선생님으로 다시 한 번 조지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1학년 학교 개별상담 때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순수하고 호기심에도 라율이를 이뻐할 수 있으나 3학년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마냥 라율이를 예뻐하는 아이들

로 남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상처받지 말라.”고요.

제게 미리 상처받을 아픔에 의연해지라는 조언을 주었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나서 4학년이 되었을 때 조지연 선생님께서 라율이를 맡아 주심에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우려했던 아이들의 냉대는 걱정과는 달리 전혀 없었고 오히려 라율이가 아픈 것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라율이가 자신의 이름을 똑바로 한번이라도 불러주길 바라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학교생활 4년만에 처음으로 친구들 다섯명이 집으로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지연 선생님께서 장애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상생의 지혜를 배우고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친구들로 자라게 가르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섬세한 지도로 장애편견 벗어나

이와 더불어 특수학급에서 라율이에게 자립심을 심어주며 일상생활지도와 라율이의 수준에 맞는 국어 수학 지도, 장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외부체험학습, 특수학급으로의 친구초대로 장애학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적재적소 활용되는 과정을 보며 매우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특수학급 담임선생님이셨던 최영아 선생님께서는 장애중증도 면에서 가장 심한 라율이를 보다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려 혼자 신발신기부터 혼자 가방매기, 혼자서 지시 사물 가져오기, 혼자서 연필을 잡고 그려보기 등등 일반학급에서 세세하게 지도받을 수 없는 부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성과물조차도 집으로 보내주었고 궁금해 하는 수

업 과정 또한 사진으로 정리해서 보내주고 수업계획과 체험학습 계획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걸 보며 특수학급선생님의 프로다운 면모와 올곧은 의식으로 결코 우리의 아이들이 모자라서 약자라서 차별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 애써주었습니다.

최영아 선생님과는 2년을 함께 하며 라율이와의 추억도 많습니다. 누구보다 라율이의 감정을 빨리 읽고 라율이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는 의견을 주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제가 특수학급에서 최영아 선생님을 만난 것 또한 너무도 큰 행운이었고 최영아 선생님과 조지연 선생님께서 라율이에 대한 수업계획이 서로 잘 맞으셨기에 4학년 한해가 성공적이었고 친구들 엄마사이에서도 라율이에 대한 걱정이나 불만은커녕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이가 지적장애1급으로 신변처리(화장실 후처리)와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라율이에게 변형숙 활동 보조 선생님 기꺼이 라율이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눈이오나 비가 오나 단 한 번의 지각없이 학교 갈 시간에 맞춰 저희 집 문을 두드립니다. 1교시부터 방과 후 장애인복지관에서의 각종 치료수업까지 다 받고 집으로의 귀가까지 이제껏 단 한 번의 사건사고 없이 우리 라율이를 잘 케어해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보조 시스템이 없다면 라율이처럼 중증장애인들이 특수학교를 못 갔을 때의 참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변형숙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우리 라율이는 수업 중에 바르게 착석하는 걸 배우기 힘들었을 겁니다. 급식은커녕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물 한모금도 마실 수 없었을 것이고 급하게 마려운 대변이나 소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감정과 표현을 읽어내며 단 한 번도 수업시간에 어떤 실수나 사건으로 인해 얼굴 붉힐 일 없게 해주신 분이 변형숙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키워낸 11년의 세월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 라율이는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1살을 보냈고 이제 12살을 향해 자랍니다. 선생님들 한분 한분을 떠올리면 왜 이리 뜨거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마도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분들이기에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유전자적 결함도 없다는 우리 부부의 검사결과에도 라율이는 생후6개월 때 돌연변이로 TSC(결절성경화증) 환자가 되었고 그 병의 특징으로 뇌와 안구, 신장, 심장 척추 등에 종양이 생겨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 결절로 인한 뇌전증으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6~7알의 알약을 챙겨먹는 아이의 질병을 받아들이기까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죽은 심장을 움켜쥐고 라율이를 키웠습니다. 장애진단을 받고 나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기까지도 꼬박 2년이 더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지적장애1급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어려서부터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라율이 같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집 밖으로 나 올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라율이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운명에 서있고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하라고 했다면 제 삶에 비극의 그림자는 언제나 저를 위협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수업 받고 뛰노는 걸 보는 만큼 그 아픔을 이겨내는 좋은 명약은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WS BRIEFING

happyedu.moe.go.kr 2019.01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부는 12월 13일(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시민적 가치와 태도, 역량을 높이고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활동 지원 △학생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학교문화 조성 △실천과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시민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포럼·콘퍼런스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학교 공간혁신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9일(수)에 학교 공간혁신 우수학교인 서울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해 '꿈담교실'을 견학하고 학생·학부모·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학교 공간혁신은 유은혜 부총리의 강한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실단위 공간혁신(1,250개교)과 학교단위의 공간혁신(500개교)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학교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학교 공간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교육부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제2차 학교체육진흥기본 계획(이하 제2차 계획)을 12월 27일(목)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19~'23년)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 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수립되었다.

제2차 계획은 그간의 학교체육 활성화 성과를 이어가며, 학교체육 분야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수립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20년에 초4, 5, 6학년 확대 적용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및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협업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등이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2월 18일(화)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종합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실천되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다.

사다리프로젝트, 과학에 대한 꿈과 재능을 이어주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이화여자대학교가 주관하는 '2018년 꿈자람 재능키움 과학진로잔치'가 1월 10일(목) 10시,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다리프로젝트의 팀별 주요 활동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소통과 어울림의 장으로, 교사와 학생, 시·도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멘토와 함께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 과학에 대한 이해와 이공계 분야에 대한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부터 시작된 '사다리프로젝트'는 평소 과학에 흥미와 재능이 있음에도 여건상 다양한 과학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교사를 연결하여, 과학 관련 기관 탐방과 체험 활동, 전문가 멘토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잠재된 꿈과 재능을 키워 주고 있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1월 9일(수) 발표하였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전체 자율개선대학 및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19~'21년) 지원할 계획이다.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개관으로 교육한류 기대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2월 14일(금)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 30분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에서 한·불 양국의 교육교류 상징인 「한국관(Maison de la Corée)」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프랑스 파리교육감 겸 대학구장(질 뻬꾸), 파리국제대학촌 회장(장-마르크 쏘베) 등 프랑스 측 관계자와 프랑스 유학 1세대 인사(변정원 재불 번역작가 등), 재불 한인유학생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하였다.

「한국관」은 2014년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 양국 간 교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재불 유학생들의 거주 여건 개선은 물론, 유럽 내 교육한류 교두보 마련을 위해 건립되었다.

현재는 「한국관」을 포함, 총 42개관 28개 국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 마련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학교폭력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월 24일(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호 독자 리뷰

아이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놀이교육을 알 수 있어 좋았다.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뤄 석고로 서로의 손 모양을 본 뜨고 난 후 꾸며주는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즐겁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느껴봤던터라 글에 소개된 다른 활동들에도 관심이 갔다. 그 중 석고 손 본뜨기와 비슷한 크리스마스 네일아트 하기는 더 관심이 갔는데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만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터단_ 이슬이

예비 특수교사로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그에 관한 기사는 매우 반갑다. 학교에서의 통합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에 기반한 자유학기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생들의 미래 생활역량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교사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부적인 정책들을 깊이 알 수 있었고, 예비교사로서 특수학교 현장도 엿볼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글이었다. 모니터단_ 곽다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래의 교육 모습을 예측해볼 수 있는 기사였다. 미래의 교육은 기술과 교육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통합적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온라인형 백과사전의 활용, 액티브러닝을 통한 문제해결학습 등은 학교에 가지 않고, 교사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적 학습, 감수성 학습, 관계 학습 등은 면대면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미래사회의 교육은 학습자와 교사 모두 그 특성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단_ 최민애

ENENT

1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교육복지**를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4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임제영 경북 구미 인동46길
장성호 경기 부천 중동로 204
조은빛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341번길

발행일 2019년 1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임창빈**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최민석**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TEL 044-203-6825

편집실
기 자 이순이 한주희
사 진 김경수 이대원 최원석
디자인 홍지화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교육부

"확 달라진 **행복한 교육 웹진**을 만나보세요"

- 업로드 기사를 디스플레이 규격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화면으로 즐겨요~
- 2003년부터 최근호까지 16년간의 '행복한 교육'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 목차 보기 기능으로 기사 확인이 훨씬 쉬어졌어요~
- 통합 검색 서비스를 구축,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요~

http://happyedu.moe.go.kr

지금 바로 여기에서 확인하세요.